

청송

재 중 조선인 총련 합 회
旅中朝鮮人总联合会

2026년

06

루게:27

<http://www.lzchongsong.com>





랭면

1. 메밀가루에 감자농마가루를 섞어 익반죽하여 국수를 누르고 끓는 물에서 1-1.5분 삶아 찬물에 씻어 건져서 국수사리를 만든다.
2.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삶아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버들잎모양으로 얇게 썰어 식힌 국물에 담그어놓고 닭고기는 가능케 찢어 꾸미를 만든다.
3. 국물은 간장으로 색을 낸 다음 식혀 동치미국물을 다서 간을 맞추어 찬곳에 놓아둔다.
4. 김치무우, 배추김치, 오이, 배는 버들잎모양으로 얇게 썰어놓고 닭알은 전을 지져 가능케 썰어놓는다. 다진 파와 마늘에 고추가루, 소금, 참기름, 간장, 닭은 참깨, 국물을 두고 짜룩한 양념을 만든다.
5. 국수사리를 고기국물에 담그었다가 추려서 그릇에 담고 꾸미를 놓는다. 실파고추와 닭알지짐, 잣으로 곱고 국물을 부은 다음 양념장을 쳐서 낸다.



차례

CONTENTS

혁명활동소식

- 1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 평양 도착
- 2 ---조중친선의 년대기에 특기할 력사적인 상봉
- 3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와 회담하시였다
- 5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 6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 우의탑에 꽃바구니 진정
- 7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와 함께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참관하시고 기념식수를 하시였다
- 8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습근평 동지와 땀겨워 녀사를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 9 ---신형다목적구축함 《최현》호 취역식 성대히 진행
- 10---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신설대상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총련합회소식

- 12---총련합회 최은복의장 목단강지구협회지부 공민가정 방문
- 16---상해시지부공민 및 친척방문단 조국방문
- 18---세기와 더불어 빛나게 발전하는 조중친선
- 19---조중친선은 영원할것이다
- 21---자주와 정의의 만고장청

조국소식

- 22---전국적으로 기본면적의 모내기 최적기에 결속
- 23---눈부신 전변을 맞이한 강동군을 돌아보고
- 27---각지 농촌들에서 논판에 새끼물고기놓아주기가 한창이다
- 29---밀, 보리농사결속을 위해 매진한다
- 30---미제는 조선전쟁의 도발자

동포소식

- 34---제1회 해란강단오민속문화관광활동 통정서 개막
- 25---료녕성조선족문학회 회장단 《장백산》잡지사 방문
- 36---대련시 조선족민속문화예술공연 열려
- 37---《인생 후반전, 나는 다시 가수입니다》

중국소식

- 39---활기있게 발전하는 중국의 경제
- 40---홍색근맥을 굳건히 지키고 홍색유전자를 전승해
- 42---습근평 총서기의 조선 국민방문, 중조관계 발전사에서 중요한 이정표적 의의

조중왕래

- 45---지난날을 계승하고 미래를 개척하며 시련속에서 함께 전진하여 전통적인 중조친선의 새로운 장을 계속 아로새기자
- 47---손야 심양시인민정부외사판공실 주임 마종수 주심양 조선 총령사와 업무회담 개최

국제소식

- 48---파키스탄 대통령, 이란 대통령과 회담
- 48---5. 4운동
- 49---世界杯由来
- 50---건조한 지역에서도 먹는물을 생산할수 있는 장치

상식

- 51---73살의 승병장 서산대사
- 52---达尔文
- 54---파키스탄
- 55---세계의 언어수와 종류
- 56---단어발음에서의 말소리변화

련재소설

- 57--- 장편소설 립 꺾 정

앞표지:세상에 부럼없이 자라고있는 어린이들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 평양 도착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습근평동지를
뜨겁게 맞이하시였다



세월의 온갖 풍파를 이겨내며 반제자주와 평화, 사회주의위업실현을 위한 장구한 려정에서 맺어진 전통적인 조중친선이 새로운 전략적높이에서 승화발전되고있는 시기에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의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또다시 이루어졌다.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65돛이 되는 뜻깊은 해에 진행되는 습근평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두 당, 두 나라 인민의 전략적선택이고 공동의 귀중한 재부인 조중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데서 중요하고 의의깊은 행보로 된다.

국기계양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기가 나뉘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를 맞이하기 위하여 평양국제비행장에 나오시였다.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왕아군동지를 비롯한 대사관 성원들이 나와있었다.

습근평동지의 전용기가 6월 8일 정오 비행장에 착륙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습근평동지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의 뜻깊은 상봉에 이어 습근평동지와 9개월만에 평양에서 다시 만나게 된 기쁨을 표시하면서 굳은 악수를 나누시였다.

습근평동지는 7년만에 평양방문이 또다시 이루어진 소감을 피력하면서 **김정은**동지께서 따 뜻이 맞이하 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이며 당중앙판공청 주임인 채기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중앙외사사업위원회 판공실 주임이며 외교부장인 왕의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장 류해성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책연구실 주임 당방유동지,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장 동군동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임 정목

결동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장 왕문도동지와 그밖의 수행원들이 함께 왔다.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에게 귀여운 어린이들이 꽃다발을 드리였다.

습근평동지의 전용차는 모터찌클의 호위를 받으며 비행장을 나섰다.

차행렬이 지나가는 순안구역과 립흥거리, 새별거리 등 연도마다에서 시민들은 우리 인민에 대한 형제적중국인민의 따뜻한 친선의 정을 안고 온 습근평동지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연도들에서 시민들은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동지적 관계로 굳게 결합된 친선단결의 뜨거운 정을 담아 환영의 인사를 보내였다. (끝)

조중친선의 년대기에 특기할 력사적인 상봉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를 환영하는 의식 성대히 진행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는 형제적인 중국인민의 친선의 사절을 조선인민은 최대의 국민으로 뜨겁게 열렬히 맞이하고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를 환영하는 의식이 6월 8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였다.

조중 두 나라 국기가 나뉘는 광장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와 명예기병대, 국방성중앙군악단이 정렬해있었다.

평양시민들과 청년학생들, 어린이들이 손에손에 두 나라 국기와 꽃송이들을 들고 서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께서 환영의식장소에 나오시였다.

습근평동지가 탄 전용차가 **김일성**광장에 도착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속에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를 반갑게 맞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에게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을 소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이며 당중앙판공청 주임인 채기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중앙외사사업위원회 판공실 주임이며 외교부장인 왕의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장 류해성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책연구실 주임 당방유동지,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장 동군동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임 정목결동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장 왕문도동지를 비롯한 중국측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누시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를 환영하는 의식이 진행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속에 21 발의 레포가 발사되었다.

습근평동지에게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었다.

김정은동지의 안내를 받으며 습근평동지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환영의식이 끝나자 우렁찬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습근평동지는 조선당과 정부, 인민의 환대에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시하였다.

군중들은 세기와 세대를 이어 자기의 본태를 곳곳이 지켜온 조종친선의 뉴대를

더욱 굳건히 다져주시며 새시대의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념원에 부응하는 전략적인 확대발전으로 강력히 인도해나가는 최고수뇌분들을 우러러 격정의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조종최고수뇌분들께서는 군중들의 환호에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습근평동지의 전용차는 환영연도를 지나 숙소인 금수산영빈관에 도착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습근평동지를 숙소까지 안내하시었다.

조종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의 두터운 친분과 우애의 정이 넘치는 평양상봉은 훌륭한 전통을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하며 친선단결의 새 전기를 새겨나가는 조종관계를 다시금 보여주는 사변으로 력사에 뚜렷이 기록되었다. (끝)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와 회담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6월 8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와 회담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금수산영빈관을 찾으시여 습근평동지와 따뜻한 인사를 나누신 후 두 나라 국기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7년만에 평양을 방문한 습근평동지를 최대의 국민으로 열렬히 환영하시면서 총서기동지가 올해의 첫 외국방문으로 평양을 선택하고 찾아오신것



은 조종친선에 대한 최고의 중시의 표시이며 우리 인민에 대한 최대의 지지로 된다고, 평양은 이를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총서기동지의 이번 방문은 조종

두 나라가 자주와 정의를 위한 력사의 옳은 편에 언제나 함께 서있으며 그 어떤 국제정세의 격변속에서도 력사의 검증을 받은 조중친선관계가 얼마나 공고한가를 다시 한번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친선의 전통으로 특수하고 공동의 사회주의위업으로 특수하며 변함없는 계승으로 특수한 조중 두 나라 관계의 불변성과 불패성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2025년 9월 베이징상봉이후 량국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여러 방면에서 활력있게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조중친선을 가장 중대한 제1의 전략적사업으로 견지하고 두 나라 관계를 사회주의국가간 관계의 본보기로, 변색될수 없는 특수하고 진실하며 공고한 전략적관계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며 이것은 불변한 우리의 선택이고 의지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은 중국당과 정부, 중국인민이 습근평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현대화국가건설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위대한 성과를 이룩하고 국제적지위를 절대적인 높이에 올려세운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 하시면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 당과 정부는 《하나의 중국》원칙에 립각하여 핵심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당과 정부의 정책과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성원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습근평동지는 아름다운 평양을 또다시 방문한 소감에 대하여 피력하면서 최근년간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식사회주의를 령도하여 중요한 성과들을 이룩하신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 고 말하였다.

습근평동지는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매우 중시하는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한 립장은 변하지 않을것이고 김정은총비서동지가 령도하는 조선의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는 변하지 않을것이며 중조쌍방의 공동의 리익과 훌륭한 전략적환경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심은 변하지 않을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습근평동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김정은동지와 새시대 중조관계발전의 설계도를 함께 마련하고 교류와 협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중조관계가 시대와 더불어 보다 큰 진전을 이룩하도록 추동함으로써 두 나라 사회주의건설위업과 중조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촉진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조중최고령도자동지들께서는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켜나가는 려정에서 이룩한 당 및 국가건설경험을 진지하게 교환하시였으며 전통적인 조중친선협조관계를 보다 굳건한 토대위에 올려세우기 위한 중요문제들을 토의하시였다.

또한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65돛을 계기로 쌍방이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두 당, 두 나라사이의 고위급 래왕을 통한 전략적의사소통을 더욱 긴밀히 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보다 확대발전시켜 조중관계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데 대하여 합의하시였다.

회담에서는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 대한 의견교환이 진행되고 복잡다단한 세계정치정세속에서 조중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전략적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고 량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리익을 굳건히 고수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수호할데 대한 문제들이 논의되었으며 만족한 견해일치가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6월 8일 저녁 목란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리설주녀사와 함께 목란관에서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를 반갑게 맞이하시고 두 나라 국기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습근평동지와 함께 연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조중 두 당,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을 열광적인 박수로 환영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에 대한 따뜻한 우애와 친선의 정을 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방문한 습근평총서기동지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열렬히 환영한다고 하시면서 오늘 평양의 거리들과 연도마다에 펼쳐진 환영의 열파는 습근평동지와 중국당과 인민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동지적우의와 형제의 정, 불패의 조중친선의 위력을 뚜렷이 증시해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중국인민이 사회주의현대화강국을 전면적으로 건

설하고 두번째 백년투쟁목표를 달성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성업에서 보다 큰 변혁들을 이룩하기를 충심으로 축원하시면서 오랜 형제적우의와 신뢰의 기반우에서 공동의 의지와 노력으로 나날이 공고해지는 조중친선이 더욱 훌륭한 앞날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이어 습근평동지가 답례연설을 하였다.

습근평동지는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계절에 또다시 조선을 방문하여 김정은총비서동지와 마음껏 우정을 나누고 미래를 함께 논의하게 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중국대표단의 이번 방문을 위해 성심을 기울이고 성대하고 열렬히 환영해주고있는 김정은동지와 조선당과 정부, 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였다.

습근평동지는 올해에 소집된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는 조선당과 국가사업의 장기적발전을 위한 전략적계획을 세우고 중대한 포치를 함으로써 조선의 사회주의의 새로운 전면적발전기를 열어놓았다고 하면서 김정은총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굳건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당대회가 제시한 목표와 임무를 순조롭게 완성하여 조선의 사회주의위업의 새 국면을 끊임없이 개척하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중친선관계의 끊임없는 공고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연회는 시종 친선과 우애의 정이 차넘치는 화기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였다. (끝)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 우의탑에 꽃바구니 진정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고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가 6월 9일 우의탑에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우의탑에 나오시여 습근평 동지와 팽려원녀사를 맞이하시였다.

중화민족의 우수한 아들딸들이며 조선인민의 진정한 전우들인 중국인민지원군 령사들에 대한 경의심이 흐르는 우의탑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중국인민지원군 령사들은 영생불멸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조중최고수뇌분들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제국주의무력침공을 격퇴하는 조선인민의 성전에 참전하여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한 중국인민지원군 령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습근평 동지는 조중친선의 불멸의 상징인 탑의 내부를 돌아보았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습근평 동지에게 참다운 국제주의정신과 형제적우의를 안고 조선전선에 용약 달려나와 조선인민과 어깨걸고 피어린 싸움을 벌리고 전후복구건설을 성심을 다해 도와준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료와 사진, 유화작품들에 대하여 소개하시였다.



습근평 동지는 지원군 령사명부를 번져보면서 하나의 운명으로 결합된 두 나라 인민들의 전투적우의와 동지적협조정신을 뚜렷이 과시하고 조중인민의 마음속에 친선의 고귀한 상징으로 살아있는 령사들에 대하여 회억하였다.

조중최고수뇌분들께서는 두 나라 인민이 한전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함께 싸운 나날들은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퇴색될수 없고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력사적 기억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중국인민지원군 령사기념시설들을 공동으로 잘 보존관리하고 혁명전통교양과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도덕교양을 심화시키며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야 한다는 일치한 견해를 표명하시였다. (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와 함께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참관하시고 기념식수를 하시였다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고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가 6월 9일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참관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께서 동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에 나오시여 습근평동지를 맞이하시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습근평동지의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방문을 환영하여 교원이 꽃다발을 드리였다.

습근평동지는 김정은동지의 안내를 받으며 교내를 돌아보았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에게 우리 혁명의 장구한 기간 당의 명맥과 전도를 담보하는 성스러운 사명과 역할로써 로동계급의 당건설위업수행에 기여한 학교의 연혁에 대하여 소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와 습근평동지는 3호강당에서 당정책강의를 참관하시였다.

습근평동지는 학교가 사회주의집권당의 백년미래를 담보해나갈 핵심골간육성의 원종장답게 훌륭히 꾸려졌으며 학교에서 조선로동당의 혁신적인 사상리론을 깊이 체득시키면서 당간부육성을 위한 리론무장, 정신무장, 실력배양에 주력하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였다.

수강생들은 새시대 조중관계발전사에서 중대한 사변적계기에 학교를 방문하여 영원히 잊지 못할 뜻깊은 추억을 새겨주신 두 당 최고수뇌분들께 열렬한 박수로써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조중 두 당 최고수뇌분들께서는 전동차를 함께 타시고 학교구내를 돌아보시면서 당의 후비간부양성체계와 당학교교육의 교육체계, 교수내용 등에 대한 견해를 허심탄회하게 나누시었다.

최고수뇌분들께서는 조중 두 당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확대발전시켜 우수한 당건설경험을 호상 깊이있게 교환하고 진지하게 배우면서 다같이 당을 강화해나가는데서 당간부양성기관들이 응당한 역할을 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용의를 피력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와 습근평동지는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방문을 기념하여 함께 나무를 심으시었다.

조중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굳건한 동지적우의와 혁명적단결, 참다운 지지협조의 새로운 장을 펼치고 더욱 아름답고 창창한 미래를 가꾸어가시려는 두 당

최고수뇌분들의 숭고한 뜻이 어려있는 전나무가 성스러운 대지에 뿌리를 내리었다.

뜻깊은 식수를 기념하는 표식비가 제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재룡동지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이며 당중앙관공청 주임인 채기동지와 함께 표식비를 제막하자 량측 지도간부들과 수행원들, 학교의 교직원, 학생들은 조중 두 당, 두 나라 친선관계발전의 새시대를 빛내여가시는 최고수뇌분들을 우러러 열렬한 박수를 터쳐올리었다.

표식비에는 《조중친선은 영원히 푸르청청하리

김정은동지께서와 습근평동지께서 심으신 나무

2026년 6월 9일》이라는 글발이 조선어와 중국어로 새겨져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와 습근평동지는 함께 심으신 나무와 표식비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를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께서 6월 9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의 숙소를 방문하시고 습근평동지와 친교를 두터이 하시었다. 조중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과 녀사들께서는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고 전동차에 동승하시여 금수산영빈관의 록음길은 정원구역을 지나시며 친근하고 우애의 정이 넘치는 담소를 나누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와 습근평동지께서는 조중친선단결사에 의의깊은 년륜이 새겨지는 해에 평양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새시대 관계발전의 원대한 설계도를 마련하신 만족감과 감회를 표시하시면서 생기와 활력에 넘친 계절처럼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의 시련속에서도 더욱 청청해지고 굳건해질 조중친선의 전도에 대한 소감들을 피력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습근평동지, 팽려원녀사를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었다.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는 오찬석상에서 친선적인 담화를 계속 나누시었다. 오찬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끝)

신형다목적구축함 《최현》호 취역식 성대히 진행

구축함 《최현》호 취역식이 6월 23일 남포항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취역식에 참석하시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시대 위력한 전함이 거연하게 웅좌하고있는 취역식장에 도착하시자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의 위대한 수호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최대의 경의와 다함없는 고마움이 열광의 환호로 세차게 분출하였다.

조선인민군 해군은 **김정은**동지를 향하여 가장 뜨거운 신뢰심과 충성을 표시하였다.

김정은동지를 국방 및 선박공업부문 지도간부들과 국방성과 해군의 주요지휘관들이 정중히 영접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조춘룡동지가 구축함 《최현》호의 취역준비경과보고를 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구축함 《최현》호의 취역을 기념하여 뜻깊은 축하연설을 하시었다.

공화국의 힘과 존엄을 최강으로 다져 조국과 인민의 안녕과 미래를 굳건히 수호해나가시려는 위대한 웅지가 구절구절 비껴오고 새시대 함선공업혁명의 줄기찬 발전과 현대적해군무력의 활기찬 전망을 확신케 하는 **김정은**동지의 열정넘친 연설은 만장을 세차게 격동시키었다.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절대적인 신뢰심, 열화같은 충성의 열정이 폭풍같은 《만세 !》의 함성으로 터져올라 항만을 진감하였다.

위임에 따라 구축함 《최현》호를 조선인민군 해군에 취역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서를 조선인민군 원수 박정천동지가 랑독하고 조선인민군 해군 사령관 박광섭해군상장에게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라 구축함 《최현》호는 조선인민군 해군 서해함대에 취역하여 공화국 서해해상방위와 전쟁억제의 영예로운 사명을 수행하게 된다.

구축함해병들을 대표하여 《최현》호 함장 최금철해군상좌가 결의토론을 하였다.

조선인민군 해군 구축함 《최현》호에 해군기를 게양하는 의식이 진행되었다.

김정은동지께서 구축함에 오르시었다.

취역식 첫 출항을 앞두고 최고사령관동지를 또다시 함에 모시는 무상의 영광을 지닌 해병들의 끝없는 영예와 열광이 구축함을 휩싸안았다.

김정은동지께서 함에 오르신것을 환영하여 함장이 영접보고를 정중히 올리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함수와 함미갑판에서 구축함해병들을 만나시었다.

신성한 사명과 크나큰 믿음을 안고 함을 인도받는 해병들에게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기념쌍안경이 수여되었다.

위임에 따라 조선인민군 원수 박정천동지가 구축함 제1부함장에게 쌍안경을 수여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구축함 《최현》호가 백전로장의 성함을 아로새긴 전함답게 창군세대의 위대한 정신과 무쌍한 용감성, 백승의 전통을 굳건히 계승하여 조국수호의 항로에 승리의 항적만을 새겨가리라는 믿음과 기대를 표시하시면서 구축함해병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해군의 강화발전사에 길이 빛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구축함 《최현》호의 출항의식이 있었다.
구축함의 출항을 알리는 배고동소리가
울려퍼지는 속에 항만에 정박해있던 해군

함선들이 일제히 축하신호기를 올렸다.

참가자들은 구축함해병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주며 가장 뜨겁고 열렬한 축하를
보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신설대상들을 현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6월 24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신설대상들을 현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과 조선인민군 주요지휘성원들이 동행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갈마관광철도역을 돌아보시면서 시공 및 운영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관광지구를 찾는 려객들의 편리를 도모할수 있도록 해안관광지구가까이에 터전을 잡아준지가 엇그제같은데 불과 1년사이에 현대적인 철도역이 일떠섰다고, 건설자들이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치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철도역의 모든 요소들이 우리 당의 건축미학사상과 실용적배치원칙, 시대적요구에 맞게 조화롭게 구성되었으며 철도역건설에서 한단계 진보한것이 알린다고, 우리 나라 지방철도역개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인식을 개변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철도역건설에서도 역시 고유의 기술적, 전문적요구를 철저히 구현할수 있는 기술설계와 건축설계의 합리적인 결합이 중요하다는것이 다시금 증명되였다고 하시면서 철도하부구조설계의 과학성, 기능성, 전문성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철도역사의 마감시공에서 나타난 일련의 부족점들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건설부문에서는 시공에 대한 질관리평가체계를 보다 세부적으로 완성하며 시공지도력량을 강화하고 건설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또한 건설감독기관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시공단위들이 일정한 기간 건설물의 질을 책임지고 보수, 유지하도록 법률적으로 규제하는것을 비롯하여 건설법을 계속 보완하고 완비해나가는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철도역건설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전국의 도소재지 철도역들을 현대적으로 일신시키실 구상을 피력하시면서 려객 및 화물통과능력을 비롯한 해당 지역의 특성과 기능적요구를 타산한 과학적인 설계를 선행시키며 그에 따르는 예산안을 세우고 심의해볼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해마다 20 개 시, 군들에 현대적인 병원들을 계속 건설해야 하는것만큼 설계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설계, 심의, 합의, 예산작성 등 건설의 모든공정이 건설법에 준한 과학적이며 법규적인 절차에 따라 엄격히 진행되도록 정책적지도를 강화하며 설계가들의 실무적자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 보다 큰 힘을 넣을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구급치료에 필요한 각종 의약품들과 설비들의 효율적인 정상가동에 필요한 소모품들을 원만히 보장해주는것을 비롯하여 응급치료소의 운영 및 의료봉사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밝히시였다. (끝)



총련합회 최은복의장 목단강지구협회지부 공민가정 방문

최은복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합회실패료해단은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목단강지구협회 산하조직들의 공민실패를 료해하기 위하여 산하조직과 공민들의 가정을 방문하였다.

총련합회동주봉국장과 김연주국장, 신영철령사동지가 동행하였다. 이번 실패료해를 위하여 본부에서는 사전에 2023년부터 현재까지 목단강지구협회 산하지부공민들의 공민명단과 공민들의 체류지, 사업과 생활형편 등 확인사업을 진행하였다.

총련합회공민실패방문단은 6월 15일 오전 심양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오후에 해림역에 도착하였다. 목단강지구협회 남초월회장, 김영일부회장과 녕안시 리보배전지부장의 아들 전지용선생이 해림북역에서 우리 일행을 마중하였다.

우리일행은 차를 타고 100여리길을 달리여 김영일부회장이 살고있는 해림시 신안향서광촌에 도착하였다.

일행은 마을을 돌아보면서 김영일부회장의 집에 들어섰다. 울타리를 친 터전에는 남새가 자라고 벽은 하얀회칠을 하였는데 빨간 추녀가 눈길을 끌었다. 집안에 들어서니 부엌과 방사이에 칸막이가 없고 널찍한 방에 있는 옛 가구들을 보니 생활이 넉넉치 못한것 같다.

의장동지는 김영일부회장의 가정형편과 해림지부공민들의 생활들을 료해하면서 오래동안 담화하였다. 한평생 농군으로 살면서 농보에 약간의 토지에 의하여 외롭게 생활하는 무척푹한 김영일부회장의 모습을 보면서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다음 일정이 기다리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우리는 함께 승용차에 앉아 해림시에서 살고있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이었던 최청산고문의 아들집을 방문하였다. 최청산고문의 아들내외는 장애인이다. 아들내외와 우리의 도착소식을 듣고 모여온 공민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집안은 최청산고문이 생존할 때와 별로 변화가 없다. 의장동지는 장애인보조금으로 살아가는 최청산고문의 아들내외가 생각보다는 잘 살고있는것을 보고 근심을 놓고 칭찬을 하여주었다.

의장동지는 공민들에게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무엇이며 항상 건강하여 가족들과 함께 조국을 방문하여 발전된 조국의 모습도 보고 해외공민들에 대한 조국의 혜택도 받으라고 권고하였다.

저녁때가 되어 우리는 해림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였다.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우리는 아쉽게 공민들과 작별인사를 나누고 차를 타고 녕안으로 이동하여 주숙하였다.

이튿날 아침 호텔에서 녕안시지부 공민들과 상봉모임을 가지었다. 남초월회장과 김영일부회장, 박상진녕안시지부장을 비롯한 녕안지부공민들이 상봉모임에 참가했다. 모두

들 허물없이 흘러간 세월속에 못잊을 뜻깊은 조국방문의 나날들과 공민활동과정에 있는 일들도 이야기하면서 총련합회사업에 바쁜 의장동지와 령사동지가 자기들을 찾아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의장동지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따뜻한 분위기속에 점심도 함께 하였다.

오후 1시가 넘어서 식사를 마치고 우리 일행은 두시간을 달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나날 일제와 싸우시며 남기신 자옥들이 력력한 경박호를 유람하였다. 비가 와서 폭포의 물량이 많다고 하였다. 경박호유람지는 풍경이 아름다웠고 시간이 급하여 폭포만을 유람하는것이 좀 유감스러웠다.

이날 밤은 경박호에서 쉬고 이튿날 아침에 뺄스를 타고 목단강으로 향하였다. 아침부터 내리는 비가 몇지를 앓는다.

목단강시의 고향집식당에 도착하니 김영희, 리선보, 남성옥공민들이 우리를 반갑게 마중하였다. 이날 17명의 공민들이 모였다.

의장동지는 리선보, 김영희, 남성옥공민들을 비롯한 여러 공민들과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민들의 생활상 곤란과 애로들을 료해하면서 추억에 젖은 조국방문과 공민 활동들을 이야기하여 오래동안 이야기를 하였다. 식사들을 마치고 우리는 전지용선생이 보내준 념안특산물인 수박, 참외 10지함을 목단강공민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우리 일행이 목단강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계서시에 도착하여 뺄스를 타고 룡성화원 호텔에 도착하자 립명순전부회장을 비롯한 계서시공민들이 인사하며 반갑게 맞이하였다. 립명순공민은 목단강지구협회부회장과 계서시지부장사업을 오래동안하면서 공민들의 애로를 해결하여 준 훌륭한 일군이였다. 지금은 년세가 많아 활동을 못하고있어도 공민사업에 관심이 많다.

의장동지와 남초월회장은 립명순공민에게 공민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였다고 이야기 하니 립명순공민은 사양하면서 본부일군들과 령사동지들이 먼길에 수고가 많았다고 인사를 하면서 계서공민들의 상황을 소개하였다. 저녁에는 장애자아들과 함께 사는 93세인 최봉화공민의 집을 방문하여 어려운 생활에 보탬이 되라고 생활보조금을 그의 손에 쥐여주었다.

이튿날 계동현에서 의장동지는 우리 공민들을 만나 담화를 하고 이어서 밀산시에 달려가 지부장 리광일지부장을 비롯한 공민들과 담화를 진행하였으며 습돌릴사이도 없이 칠대하시에 가서 우리 공민들을 만나보았다.

다음날 아침에 려관에서 식사를 하고 고속열차를 타고 심양으로 돌아왔다.

이번 목단강지구협회를 료해하면서 계획하였던 발리현 지부를 시간상관계로 방문하지 못하였다. 남초월회장의 세심한 사업작풍으로 목단강산하지부공민실태료해사업이 구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였다. 이번의 실태료해로 총련합회에서는 특히 농촌에 산재하여 외롭게 살고있는 우리 공민들의 어려운 생활형편을 잘 알게되였고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과 앞으로 할 사업들에 대한 방향과 방법에 대하여 장악할수 있게 되였다.

이번 실태사업에 남초월회장과 김영일부회장이 동행하면서 수고를 많이 하였고 정명희지부장과 립명순전부회장, 전지용선생이 우리 일행을 도와주었다. 이에 감사를 드린다.



목단강시지부



계서시분회



경박호답사



칠대하분회 김상금공민 가정방문



해림분회 최림동포 가정방문 및 해림공민실태료해



해림분회 김영일부회장

상해시지부공민 및 친척방문단 조국방문

상해시지부공민 박성길

상해시지부공민 및 가족방문단이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그리운 조국을 방문하였다. 13명으로 이루어진 방문단성원들의 대부분이 처음으로 아름다운 금수강산인 조국땅을 밟았다.

평양에서 우리는 여러곳을 방문하였다. 방문단 일행은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다발을 드리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유서깊은 만경대고향집도 방문하였다.

일행은 평양에 체류하면서 주체사상탑, 개천문, 천리마동상, 조선혁명박물관, 민속박물관을 참관하였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방문하여 아이들의 음악, 춤, 서화, 자수 등 소조활동과정을 관람하고 멋지고 즐거운 교예공연을 관람하였다.

대동강변에 위치한 유명한 옥류관에서 최고급 평양랭면을 맛보았는데 옥류관의 특색있는 랭면이 여운을 남겼다. 화성대동강맥주집에서 대동강맥주도 마셨다. 평양에서는 안내지도원선생이 우리를 상점들과, 금강시장, 전시장등 여러곳에 안내하여 모두가 좋아하는 선물, 식품, 화장품, 기념품들을 구매하였다.

우리들은 대부분이 조선말을 몰라서 불편하였는데 안내선생들이 성의를 다하여 우리의 편의를 돌보아주었다. 지도원, 통역원선생과 함께 저녁무렵 대동강변을 산책하며 대동강 양안의 황홀한 불빛야경을 감상하게 되어 기뻐했다. 조국에서의 7박 8일동안 해외동포사업국 일군들의 성실한 동행과 로고에 감사하고 우리는 많은것을 배웠다.

친척면회를 주선해 준 녀성지도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일부 친척의 주소가 잘못 적혀있는데, 가족지도원이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애를 써서 신청한 친척들이 모두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출발하기전에 최은복의장선생님이 우리모두에게 안전하게 즐겁게 참관유람하여 돌아올것을 부탁한것에 감사드리며 또한 조국에서 리순남제 1부의장산생님의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무사히 돌아왔을 때도 최의장, 동국장이 방문단원들과 만찬을 함께 하며 조국방문과 생활에 대해 관심을 하였다.

그리고 이번 방문을 위해 수고한 김연주국장과 동주봉국장에게도 감사드린다. 산수가 수려한 아름다운 조선, 그리고 명승지도 많은 우리 조국, 우리는 다음 조국방문도 기대합니다.





세기와 더불어 빛나게 발전하는 조중친선



당 제9차대회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조선사람의 자존심과 배짱, 슬기와 용진력을 남김없이 펼치며 필승의 신념과 드센 배짱, 불굴의 개척정신으로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새 역사를 끊임없이 펼쳐가고 세월의 온갖 풍파를 이겨내며 반제자주와 평화, 사회주의위업실현을 위한 장구한 려정에서 맺어진 전통적인 조중친선이 새로운 전략적높이에서 승화발전되고있는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초청하에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가 6월 8일부터 9일까지 수도 평양을 방문하였습니다.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체결 65돛이 되는 뜻깊은 해에 진행되는 습근평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두 당, 두 나라 인민의 전략적선택이고 공동의 귀중한 재부인 조중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하고도 의의가 깊습니다.

이번 력사적인 방문에서 **김정은**동지께서는 친선의 전통으로 특수하고 공동의 사회주의위업으로 특수하며 변함없는 계승으로 특수한 조중 두 나라 관계의 불변성과 불패성이라고 하시면서 2025년 9월 베이징상봉이후 량국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여러 방면에서 활력있게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조중친선을 가장 중대한 제1의 전략적사업으로 견지하고 두 나라 관계를 사회주의국가간관계의 본보기로, 변색될수 없는 특수하고 진실하며 공고한 전략적관계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며 이것은 불변한 우리의 선택이고 의지이라고 확인하시였습니다.

습근평동지는 이번 방문에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매우 중시하는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한 립장은 변하지 않을것이고 조선의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는 변하지 않을것이며 중조쌍방의 공동의 리익과 훌륭한 전략적환경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심은 변하지 않을것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방문에서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65돛을 계기로 쌍방이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두 당, 두 나라사이의 고위급래왕을 통한 전략적의사소통을 더욱 긴밀히 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보다 확대발전시켜 조중관계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데 대하여 합의하시였습니다.

우리들은 이번 력사적인 방문으로 새시대 조중관계발전의 설계도를 함께 마련하고 교류와 협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조중관계가 시대와 더불어 보다 큰 진전을 이룩하도록 추동하고 두 나라 사회주의건설위업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촉진하는데 적극적인 역할과 계기로 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조중 두 나라는 산과 강이 하나로 잇닿아 있는 친선적인 름방이며 조중친선은 위대한 수령님과 모택동주석을 비롯한 로세대혁명가들에 의하여 피로써 맺어진 공동의 재부로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과 존경하는 습근평동지에 의하여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더욱 승화발전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력사적 출발점에서 새로운 발전의 시대를 맞이하는 조중친선은 새로운 시대적 사명으로 사회주의위업수행을 위한 공동의 투쟁속에서 끊임없이 공고발전되어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전략적협조관계발전의 새로운 리정표로 될것입니다.

우리들은 복잡다단한 국제정치정세속에서도 변함없이 굳건히 계승발전되고있는 조중친선을 언제나 귀중히 여기고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체결 65돛을 맞는 올해에 다채로운 친선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감으로써 절세위인들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이 대를 이어 영원히 전해지도록하며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재부인 조중친선을 사회주의 전면적발전기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갈것입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2026 년 6 월 10 일

조중친선은 영원할것이다

7년만에 또다시 조국을 방문한 습근평주석과 함께 조중친선사에 새로운 사변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을 우러르며 우리들은 걱정과 흥분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9개월전 중국 베이징의 천안문광장 주석단에 대국들의 수뇌들과 나란히 서시여 중화대지는 물론 온 세계를 위인흠모열기로 끓게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옵던 그날의 감격이 다시금 살아나는것 같았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라의 천만사로 그토록 분망하신 속에서도 습근평주석의 1박 2일이라는 짧은 평양방문기간 무려 8차례나 상봉하시며 형제적우의와 정을 두터이하신 것은 중국당과 정부에 대한 크나큰 신뢰와 지지의 표시이며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더욱 공고발전시키시려는 의지의 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력사적인 회담에서 두 나라 관계를 사회주의국가관계의 본보기로, 변색될수 없는 특수하고 진실하며 공고한 전략적관계로 강화발전시켜나갈 의지를 호상 천명하시는 조중 최고수뇌분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내외의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든 조중친선의 력사와 전통은 장백의 령봉들처럼, 압록강의 푸른 물처럼 영원하다는것을 다시금 폐부로 느낄수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습근평주석과 함께 반제공동투쟁의 상징, 피로써 맺어진 전투적 우의의 상징인 우의탑과 공화국의 당간부양성기지이며 세계일류급의 정치사상학원인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참관하시는 모습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서 조중 두 당, 두 나라는 제국주의라는 공동의 원수들과 어깨걸고 견결히 싸우며 친선의 새로운 전통을 써나갈것이라는 확신을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강한 혁명적원칙성과 원숙한 외교지략, 넓으신 도량과 포용력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수십리에 달하는 연도환영으로부터 시작하여 성의있는 환대행사 전과정의 구석구석까지 미치신 그이의 세심한 지도의 손길이 없었다면 습근평주석의 이번 평양방문이 조중친선을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 특별한 계기로 될수 없었을것입니다.

습근평주석이 종전의 판례를 깨고 평양을 방문하기전에 영원한 친선과 전략적협조를 맹약하는 글을 발표하고 귀로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한없는 고마움의 정이 흘러넘치는 감사전문을 보낸 사실을 놓고서도 조중관계발전을 주도해나가는 높으신 권위를 가슴벅차게 새겨안게 되었습니다.

조중 두 나라의 관계를 사회주의국가간의 본보기관계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어 우리 재중동포들의 삶과 존엄도 빛나며 그 미래도 억년창창하다는것이 우리들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우리들은 대국수뇌외교의 빛나는 장을 아로새겨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일심충성으로 받들어 백두산아래 사는 해외동포라는 긍지드높이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조국의 부강번영에 애국의 열정을 깡그리 다바쳐나가겠습니다.

당면하게는 경제인련합회의 모든 성원들이 의무금마련을 위한 경제활동을 활발히 벌려 올해 의무금을 넘쳐수행함으로써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재정적으로 든든히 뒷받침하는 경제인련합회의 사명과 의무에 언제나와 같이 충실하겠다는것을 맹세합니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전체 성원일동

자주와 정의의 만고장청

날로 가속화되고있는 세계백년변국에 직면하여 온갖 풍파를 이겨내며 반제자주와 평화, 사회주의위업실현을 위한 장구한 력정에서 맺어진 전통적인 조중친선이 새로운 전력적높이에서 승화발전되고있는 시기에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의 력사적인 평양상봉소식에 접한 우리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전체 성원들은 전통적친선의 바통을 이어 만고장청의 대로를 향해 달려나갈 결의로 충만되어있습니다.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65돛이 되는 뜻깊은 해에 진행된 습근 평동지의 우리 조국방문은 두 당, 두 나라 인민의 전략적선택이고 공동의 귀중한 재부인 조중친선 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하고 의의깊은 행보로 되며 조중친선의 불패성과 불변성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우리 당과 우리 조국에 대한 가장 힘있는 정치적지지성원으로 됩니다.

조중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께서는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통하여 혁명적우의와 동지적친분관계를 더욱 두터이 하시였으며 전통적인 조중친선관계를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사회주의국가간의 본보기적관계로 발전시켜나가실 확고부동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시였습니다.

조중 최고수뇌분들의 위대한 사상과 굳건한 신념,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와 자주, 정의를 위한 성스러운 력정에서 변함없이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성원하며 운명을 같이 해나가는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며 조중친선은 위대한 새 력사를 아로새기며 길이 무궁할것입니다.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전체 성원들은 이번 평양상봉이 펼쳐준 친선의 원대한 설계도를 따라 생기와 활력이 넘친 계절처럼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의 시련속에서도 자주와 정의로 불변하고 더욱 굳건해질 조중친선의 청청한 전도에 대한 확신을 안고 새로운 시대적내실과 강력한 동력으로 조중친선의 더 아름다운 미래개척의 선봉자, 계승자들로 준비하며, 영위해나가겠습니다.

재중조선인청년협회

2026년 6월 10일



전국적으로 기본면적의 모내기 최적기에 결속

이른봄철부터 수확일동안 지속된 가물로 하여 난판이 겹쌓인 속에서도 올해 각지 농촌들에서는 모내기가 최적기에 질적으로 진행되었다.

전국적으로 많은 로력과 시간, 영농물자를 절약할수 있는 선진적인 모기르기방법의 도입비중이 65%이상으로 높아졌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900여동의 벼모재배온실이 건설되고 농기계가 동물이 제고되어 모내기에서부터 알곡고지점령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려는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양양된 기세에 박차를 더해주었다.

총동원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각급 당조직들의 조직정치사업이 진공적으로 벌어지고 농업위원회와 자기 지역, 자기 단위 농사를 전적으로 책임지려는 도, 시, 군농업지도기관, 농장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도 비상이 높아졌다.

평양시가 벼모기르기공업화실현의 본보기를 창조하며 전국의 앞장에서 내달렸다.

영양랭상모재배방법을 앞그루로 밀, 보리를 심는 논을 제외한 전체 논면적에 도입할 통이 큰 목표밀에 수백동의 로력절약형, 부지절약형온실을 품들여 건설하고 선진적인 무토양기질에 의한 벼모기르기방법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모를 튼튼히 기른 시에서는 시작부터 기세를 올리며 모내기를 와타닥 다그쳤다.

지난해의 경험에 토대하여 영양랭상모재배방법을 85%의 논면적에 받아들일 목

표를 세우고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만단의 준비를 갖춘 속천, 문덕, 평원, 증산군을 비롯한 평안남도의 농촌들에서 씨레치기의 질보장에 특별히 힘을 넣고 농기계의 동음을 높이 올리면서 매일 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황해남도에 대한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무겁게 자각하고 분발해나선 황남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불리한 조건에 주동적으로 대처하며 모내기를 힘있게 추진시키었다.

평안북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남포시, 개성시의 시, 군, 구역들에서도 농촌변혁의 새시대를 펼쳐준 당의 은덕을 농업근로자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어 애국의 열정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이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고 농기계들이 기세좋게 전야를 누비는 속에 모내기가 적기에 질적으로 진행되었다.

지대적조건이 불리한 함경북도, 강원도, 자강도의 농촌들에서도 모기르기와 모내기적기선정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진행하고 평당포기수와 포기당대수를 정확히 보장하면서 일정계획을 드림없이 수행하였다.

안악군 오국, 속천군 채령, 강서구역 청산농장을 비롯하여 많은 농장들에서 먼저 모내기를 결속하고 뒤떨어진 단위들을 성심성의로 도와주는 집단주의기풍이 발휘되는 속에 모내기성과는 더욱 확대되었다.

과학농사추진조 성원들이 해당 지역의 농업지도기관들과 긴밀한 연계밑에 영농

공정수행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강력히 안 받침하였다.

경공업성, 정보산업성, 교육성, 화학공업성, 국가영화총국, 국가해사감독국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들과 각 도, 시, 군들의 공장, 기업소, 가두인민반들에서 달려나간 지원자들이 농업근로자들과 한마

음한뜻이 되어 전야마다에 깨끗한 량심과 애국의 땀을 바쳐나갔다.

참으로 올해의 모내기에는 우리 당이 밝힌 농촌혁명강령의 진로따라 사람도 전야도 농사방법도 천지개벽하는 사회주의농촌의 경이적인 변천상을 뚜렷이 보여준 의의깊은 계기였다.



푸른 주단 펼쳐진 안악군 오국농장의 전경

눈부신 전변을 맞이한 강동군을 돌아보고



강동군이다. 예로부터 대동강의 동쪽에 위치하고있다고 하여 그 이름도 강동이라 불리워온 이 고장의 지명은 오늘까지도 변함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취재길에서 돌아본 강동군은 너무도 많은것이 변한 고장이였다. 불과 몇해사이에 그 면모를 완전히 일신한 읍지구로부터 염소떼, 젓소떼가 흐르는 산촌과 몇쟁이학교가 솟아

오른 탄광마을에 이르기까지 천지개벽이라는 말, 로동당의 은덕일세라는 노래구절이 절로 흘러나오는 고장, 돌아보면 볼수록 정이 들고 그래서 더욱 떠나고싶지 않은 고장이 바로 우리가 찾았던 강동군이였다.

강동군 읍에 들어서면 대동강의 지류인 수정천을 마주하여 의좋은 형제마냥 나란

히 들어앉은 세동의 몇쟁이공장들을 보게 된다.

이 공장들이 바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지난해 12월 15일 몸소 준공테프를 끊어주신 강동군의 지방공업공장들이다.

우리는 이곳 군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현지도하신 강동군식료공장부터 들리었다.

그곳에서는 간장, 된장, 식초를 비롯한 기초식품들과 사탕, 과자, 술, 빵, 기름 등 《맥전》상표를 단 수십가지의 영양가 높은 식료품들을 생산하고있었다. 공장에서 만든 밀간장, 밀된장맛을 몸소 보아주시고 식초를 담는 병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엄하신 영상을 그려보며 우리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비단 이 공장뿐만이 아니었다.

강동군일용품공장의 비누작업반에서 만났던 녀성고급기능공은 공장에서 한달동안 생산한 빨래비누량을 알려주며 그것이면 군안의 수천세대에 달하는 살림집들에 비누를 충분히 공급할수 있다고, 이처럼 훌륭한 설비와 좋은 원료를 가지고 못해낼 일이 무엇이겠는가 하고 하였고 수지작업반의 평범한 로동자도 군내 농촌살림집건설장들에 보내줄 수지판들을 짹짹 생산해내겠다는 불같은 결의를 터놓았다.

강동군옷공장에서 만난 녀성지배인 역시 현대적인 피복설비들이 그췌히 갖추어져 있는 생산현장과 각종 자재들이 그득한 창고들을 보여주며 공장의 확고한 전망에 대해 열정에 넘쳐 설명하였고 도안실의 젊은 실장도 《청계천》상표를 단 강동군의 옷을 온 나라에 소문내려는 만만한 야심으로 시간가는줄 모르고 일하고있었다.

강동군 지방공업공장들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만가동의 동음을 높이 울릴 때 강동군종합봉사소에서는 위대한 우리 당이 펼쳐준 문명의 세계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운영을 시작한 때로부터 남녀로소 누구나 이곳을 즐겨찾는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줄은 자기들도 정말 몰랐다고 하는 그곳 일군의 이야기를 들으며 종합봉사소에 들어서니 과연 그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

식사실, 기재운동실, 물놀이장과 목욕실 등 어디나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았다. 로인들로부터 소년단원, 유치원아이에 이르기까지 각이한 나이의 수많은 사람들을 볼수 있었다.

아늑하면서도 현대적인 미감과 정서가 느껴지는 영화관과 사람들을 미남, 미녀로 가꾸어주는 리발실, 미용실은 물론 탁구장, 어린이놀이장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나 사람들로 붐비였고 누구나 웃음어린 환한 모습이었다.

뿐만아니라 도서관으로 매일 수백명의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찾아오고있다고, 그들이 도서관에서 정치와 경제, 과학, 기술을 비롯한 수많은 자료들을 열람하고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학습열기가 대단하다고 하는 이곳 종업원들의 이야기도 결코 무심히 스쳐지날수 없는것이였다.

당의 사랑과 은정이 가득차있는 이곳에서 그 누구인들 아름다와지고 문명해지지 않을수 있으랴.

하기에 우리도 그곳 일군에게 마음속진정을 그대로 터놓았다. 강동군인민들이 부럽다고, 정말이지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젠 강동군사람들뿐 아니라 다른 고장 사람들까지도 우리 병원으로 찾아옵니다.》

이것은 강동군병원에서 우리와 만났던 어느한 과장동무가 한 말이다. 훌륭히 일떠선 병원에서 이런 회소식부터 듣게 되는것이 무엇보다 기뻐다.

사실 이전에도 군병원은 있었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중앙병원들에 파송하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한다. 하

지만 새 병원이 일떠선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병원이 개원한 다음날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경에 처했던 강동지구탄광연합기업소 강동탄광의 평범한 노동자를 병원자체의 힘으로 소생시켰던 것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일떠세워주신 새 병원과 최신의료설비들이 있어 이런 기적도 생겨날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파장동무가 바로 환자의 수술에 참가하였던 의사였다.

병원에 찾아온 환자들은 또 그들대로 가슴가득 차오르는 걱정을 터놓았다. 병이 나면 시내의 중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곤 하였는데 이제는 이처럼 희한하게 솟아오른 자기 고장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으니 모든것이 꿈만 같다고, 우리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배려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



온 나라가 알고 온 세상이 아는 대규모 남새생산기지인 강동종합온실농장, 중평과 련포에 펼쳐진 남새온실바다에 이어 굴지의 온실도시, 농장도시로 솟구쳐오른 이곳에 도착한 우리는 제일 먼저 농장건설의 착공식에 참석하시여 몸소 첫삽을 뜨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찾았다.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소중한 재부, 희한한 온실바다가 펼쳐질 그날을 확신하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를수록 우리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이 땅의 행복이 어떻게 꽃피나는것인가를 그 불멸의 화폭앞에서 다시금 깊이 절감하며 우리는 경리인 홍성호동무와 함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다녀가신 원통형남새재배장치온실과 반구형유리수경온실을 돌아보았다.

그곳에서는 수박, 도마도, 고추, 진채, 꽃양배추를 비롯한 갖가지 열매남새들과 기능성남새들이 푸르싱싱한 잎새를 펼치며 식물세계의 독특한 정서를 자랑하고있었다. 빨강게 익어가는 도마도알들이 큼직한 포도송이마냥 무겁게 매달려있기도 하고 푸른 잎사귀들사이로 크고 실한 고추들이 다문다문 드리워져있는 모양도 퍼그나 인상적이였다. 보라색, 노란색을 띤 보기 드문 갖가지 남새들이 곳곳에 조화롭게 배치되어있어 마치 신비론 꽃의 세계에 들어선듯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곳도 있었다.

우리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다녀가신 반구형식 2중박막수경온실 24호동에도 들러보았다.

수려한 산과 들마다에 아득한 태고의 전설들이 깃들어있고 물 또한 맑기로 소문난 강동군은 곳곳에 크고작은 탄전들이 많은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러한 탄전의 한복판에도 오가는 길손들의 시야에 경탄과 부러움을 자아내며 눈부신 보석마냥 안겨드는 멋쟁이 새 교정이 있었다.



강동군 송가고급중학교이다.

우리가 학교에 들어섰을 때는 마침 수업이 끝난 후여서 실내체육관에서 학생들의 배구경기가 한창 진행되고있었다. 고급중학교학생들의 솜씨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경기기술이 높았고 응원열기 또한 체육관이 떠나갈듯 열광적이였다.

이것만 놓고서도 우리는 약동하는 활기로 들끓는 학교의 분위기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수 있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학교교장인 김성호동무와도 만났다.

그는 지금의 학교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평양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4동의 단층건물들로 이루어졌던 낡은 교사를 헐고 새로 지은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새로 지은것만이 아니라 모든 요소들이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구비된 안팎으로 흠잡을데 없는 학교였다.

여러가지 체육 및 예술활동을 진행할수 있는 다기능체육관이며 도서관, 리발실, 치료실, 야외수영장을 비롯한 교육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그췌히 갖추어져있는 학교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도 우리는 평범한 탄부, 농장원의 자녀들을 도시의 학생들 부럽지 않은 훌륭한 교정, 행복의 금방석에 앉혀준 당의 은덕을 깊이 절감할수 있었다.

이렇듯 깊은 인상을 남긴 송가고급중학교를 떠나 우리가 취재길에서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읍에서 멀리 떨어져있고 수도의 교외에서도 제일 끝에 자리잡고있는 평양시농촌경리위원회 송금축산농장이였다.

농장경리인 원유경동무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첫인상에도 손탁이 드세면서도 인정 또한 많은 일꾼이라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이웃한 축산농장과 이곳 축산농장에서 경리로 사업해오는 나날에 그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제9차대회에 참가하여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은 북반은 일꾼, 쉽지 않은 실력가였다.

그는 당의 사랑과 은정속에 훌륭히 일떠선 농장에 대하여, 젃제품생산을 위해 떨쳐나선 농장원들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그는 자기들의 농장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삼지연시건설에 동원되였던 강력한 력량을 파견해주시고 많은 자금과 자재보장대책을 세워주시며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본보기가 될수 있게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신 결과에 일떠선 긍지높은 농장이라고 말하였다.

변혁이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달라지게 되고 사람들이 달라지면 고장도 흥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변혁이 날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나라의 방방곡곡 그 어디에서나 새로운 창조물들이 끊임없이 솟구쳐올라 전체 인민이 세상이 부러워할 행복과 문명을 마음껏 누리게 될 때 그것은 곧 우리 당정책의 승리로,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로 된다.

바로 이러한 미래를 다시 한번 확신케 하여준것이 눈부시게 전변된 강동군에 대한 우리의 취재길이었다.



각지 농촌들에서 논판에 새끼물고기놓아주기가 한창이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천지개벽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있는 사회주의농촌에 보다 풍요하고 유족해질 래일을 략관하게 하는 또 하나의 이채로운 광경이 펼쳐지고있다.

농촌들에서 룡색채배 및 양어생산방법도 입열의가 고조되고있는 가운데 새끼물고기놓아주기가 시작된것이다.

농업위원회 일군의 말에 의하면 이 사업은 6월중순부터 말사이에 진행되는데 올해 논판양어의 시범단위로 선정된 480여개의 농장에서만도 수천정보에 수천만 마리의 새끼물고기를 놓아주게 되며 여기에 스스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펼쳐나선 단위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셀수없이 많다고 한다.

서해벌방의 농장들로부터 북변의 외진 산골포전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전야 곳곳에서 펼쳐지고있는 새 풍경은 인민을 위한 우리 당정책을 진리로,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인민생활향상에서 실제적인 성과를 안아오려는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드높은 각오와 열의를 생동히 보여주는 산 화폭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생활과 직결되어있는 부문과 단위들을 추켜세우고 생산을 늘이는데 큰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생활상혜택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전원회의는 농업위원회와 도, 시, 군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서 종어사업소들의 생산능력을 보장하며 시, 군들에서 2~3개 농장을 논판양어의 시범단위로 정하고 수천정보에 도입하여 많은 물고기를 생산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인민군대의 모범을 따라배워 룡색채배 및 양어생산방법을 적극 도입하는데 알곡과 물고기생산을 다같이 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지름길이 있다는것을 명심한 농업위원회와 각도, 시, 군의 책임일군들이 이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였다.

도, 시, 군당책임일군들은 룡색채배 및 양어생산방법도입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책임지고 풀어주어 해당 일군들의 열의와 책임감을 배가해주었다.

결과 8월까지 결속하게 되어있는 각도, 시, 군종어사업소 및 작업반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어 벌써 50여개 대상이 완공되고 나머지는 마감단계에서 다그쳐지고 있으며 새끼물고기와 먹이가 충분히 확보된것을 비롯하여 우리 식의 룡색채배 및 양어생산방법을 확대도입할데 대한 당정책관철의 첫해부터 뚜렷한 결실을 안아올수 있는 준비가 원만히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에 토대하여 지금 각지 농촌들에서는 새끼물고기놓아주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있다.

평양시와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를 비롯한 서해지구의 농촌들에서 우량품종의 종어와 배합먹이확보, 물고기다님길만들기 등 논판양어준비에 많은 품을 넣는데 이어 정성껏 기른 새끼물고기들을 놓아주고있다.

바다면 도의 실정에서 논판양어는 진짜 해볼만한 일, 사활을 걸고 통이 크게 진행해야 할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그 준비를 착실히 해온 사리원시, 황주군을 비롯한 황해북도안의 농장들에서도 새끼물고기놓아주기를 시작하였다.

자강도의 북부산간지대 농장들에서도 논벼와 물고기생산을 다같이 늘일수 있게 된 기쁨이 차넘치고있다. 해발고가 높고 물온도가 낮아 지난 시기에는 논판양어에 대해 생각도 못하던 화평, 중강군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당정책을 진리로,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었다.

록색재배 및 양어생산방법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논벼풍년, 물고기풍년을 함께 안아올 열의 안고 강원도와 함경남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푸른 주단 펼쳐진 포전들에 품들여 키운 새끼물고기들을 놓아주고있다.



원산시 통천농장에서



문덕군 인흥농장에서

밀, 보리농사결속을 위해 매진한다

평안남도의 농촌들에서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고지점령에 펼쳐나선 평안남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지금 밀, 보리농사결속을 위해 매진하고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와 시, 군농업지도기관들에서는 밀, 보리가 익는족족 말끔히 거두어들여 예상수확고가 그대로 실수확고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패기있게 하고있다.

도안의 농촌들에서 밀, 보리농사를 빠른속도로 결속해가고있는 속에 덕천시 형봉농장, 평성시 자산농장을 비롯한 수십개 단위들에서 국가알곡수매를 마무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사를 잘 짓자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올해 장마가 일찍 시작될것이 예견되는데 맞게 수확을 앞당기기 위한 과학적인 작전을 세우고 준비를 면밀히 갖추어놓은도에서는 밀, 보리가율이 시작된 첫날부터 대중의 열의를 고조시키며 높이 세운 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증산군에서 많은 농기계와 룬전기재들을 동원하여 올곡식농사결속을 위한 사업에서 실적을 내고있다.

땀흘려 가꾼 올곡식을 최단기간에 말끔히 거두어들여려는 농장원들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군일군들은 많은 농기계들과 함께 군안의 공장, 기업소들에 있는 화물자동차를 비롯한 룬전기재들을 동원하여 가을과 운반을 다그치도록 조직사업을 면밀히 하였다. 농장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현재 군적으로 가을은 마감단계에 이르렀으며 낱알털기성과도 부단히 확대되고있다.

각종 농기계와 룬전기재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실속있게 진행한 문덕군에서는 종합수확기를 비롯한 농기계가동률을 최대로 보장하면서 수확면적을 넓혀나가고있다.

룡림, 만홍농장을 비롯한 올곡식재배면적이 많은 단위들에 나간 군일군들은 지난 기간 농기계와 룬전기재들을 모두 동원하여 가을과 탈곡을 적기에 끝낸 단위들의 경험을 농장원들에게 이야기해주면서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고있다.

어룡농장 등 군안의 농장들에서는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면서 수확기의 가동률을 높여 매일 많은 면적의 밀, 보리를 수확하고있다.

속천군에서는 농장, 작업반들에 군일군들을 파견하여 가을과 낱알털기를 도와주도록 하였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뒤떨어진 단위들에 군당집행위원들과 군급지도적기관의 능력있는 일군들을 더 보강해주었다. 군안의 녀맹원들과 공장, 기업소의 근로자들을 뒤떨어진 농장들에 내보내 데 이어 로력조직, 작업조직을 합리적으로 한것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농장들에서

다같이 올곡식농사를 최단기간에 결속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있다.

평성시, 덕천시에서 가을과 낱알털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맞게 국가알곡수매를 병행시키기 위한 작전을 세우고 실천해나갔다. 일군들은 그날계획은 그날로 무조건 수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농

기계부속품과 연유, 용기보장에 큰 힘을 넣었다. 해당 단위들과 편계를 긴밀히 하면서 농장들에서 수매가 편향없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도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밀, 보리농사는 빠른 속도로 결속되고있다.

미제는 조선전쟁의 도발자

1950년대 조선전쟁은 백수십년의 침략력사를 가지고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가 신생국가였던 우리 공화국을 말살하고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도발한 침략전쟁이었다.

도발자들은 그 책임을 남에게 넘겨씌우기 위해 온갖 모략을 다 꾸미었다. 허나 진상을 가리울수는 없었으며 엄연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내막은 세상에 낱알이 드러났다.

계획적으로 추진된 전쟁각본

제2차 세계대전후 세계제패를 대외정책의 총적방향으로 규정한 미제는 사회주의와 민주력량의 장성을 가로막고 그를 소멸하기 위한 발악적인 공세에로 넘어갔다.

미제의 우두머리들은 장차 세계를 지도할 중책이 미국인에게 부과되었다는것을 인정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의 장래는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가 지는가에 달려있다, 이 지역이 앞으로 1000년의 세계력사의 전진을 결정할 것이라고 하면서 아시아를 주되는 침략목표로 삼았다. 조선은 그 군사지리적위치와 정치, 경제적으로 하아 아시아침략의 첫째가는 대상으로 되었다.

세계를 제패하려면 아시아를 정복하여야 하고 아시아를 정복하려면 중국을 점령하여야 하며 중국을 점령하려면 조선을 예속시켜야 한다는것이 당시 미국정책작성자들의 일치한 주장이었다.

미제는 그 실현을 위해 조선전쟁도발준비에 달라붙었다.

맥아더사령부의 《G-2》, 《G-3》 등 정보 및 작전부서들은 물론 전 일본군 고급장교들로 구성된 《력사반》과 《카토》기관까지 인입되었다. 미제는 이 집단을 통해 《A, B, C 계획》을 작성하였는데 전쟁을 3단계로 나누고 제1단계는 미제침략군과 한국피퇴군의 조선침략전쟁으로부터 시작하며(A) 제2단계는 재무장된 일본군과 장개석국민당군대도 정식 참가하여 전쟁의 불길을 만주에로 확대하며(B) 마지막단계로 우랄까지의 전 씨비리를 점령할것(C)을 예견하였다.

미제는 바로 《A 계획》에 준하여 구체적인 조선침략행동계획을 세우고 전쟁을 도발하려고 작정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잡지 《진부쓰 오라이》 1964년 9월호는 《A 계획》은 38°선에 미군과 한국피퇴군 10개 사단을 집결시켜 2개의 작전지대를 만들고 전선서부의 부대들은 평양으로, 전선동부의 부대들은 양덕, 원산으로 진격하며 평양과 원산 북부지역에서

해 공군의 상륙작전을 배합하여 조선을 타고왔는것이였다고 폭로하였다.

미제는 1949년에 침략행동계획을 실천에 옮기기로 하고 한국피퇴군을 끊임없는 무장도발에로 내몰았다. 그것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침략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그해 적들의 무장도발회수는 그 전해에 비해 2.8배이상인 무려 2610여회에 달하였다.

그러나 적들의 무장도발은 공화국경비대의 강력한 자위적 조치에 의하여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한국피퇴군의 실력으로는 우리 국가에 대한 침략계획을 실현할수 없다는 미군사고문단 단장 로버트의 보고를 받은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맥아더에게 조선전쟁도발계획을 검토하고 대책을 세울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전쟁도발후 일본주둔 미군을 투입할데 대한 내용을 새롭게 수정보충하여 조선침략전쟁계획 《AL-3》이라는것을 최종완성하였으며 극비문건 《NSC-68》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즉시 미제침략군과 추종국가군대까지 투입한다는것을 쏘아박았다.

조선전쟁계획이 완성되자 미제는 그의원만한 실행을 위해 한국피퇴군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데 달라붙었다. 현역군인수를 확보하는것과 함께 반군사조직을 내오고 학생들에게까지 군사훈련을 주었다.

당시 한 서방출판물은 미제의 전쟁도발계획에 따라 군사훈련을 받은 한국청년들의 수는 백수십만명에 달하였으며 그 목적은 인민군무력에 비한 10대 1의 우위를 보장하는데 있다고 보도하였다.

한국피퇴군에 대한 통수권을 장악하는것을 전쟁준비의 중요한 고리로 본 미제는 1948년 8월 피퇴한국과 《과도기간 잠정적군사 및 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을 체결하고 한국피퇴군에 대한 지휘권과 피퇴한국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관할권을

장악하였다. 한국피퇴군의 각 대대로부터련대, 사단에 이르기까지 미군사고문들이 배치되어 부대편성은 물론 군사훈련도 미국식으로 하였다.

미제는 피퇴한국에 막대한 군사원조를 제공하면서 무장장비도 모두 저들의것으로 갖추어주었다. 1949년 한해동안에만도 10만 5000여정의 보총 및 카빈총, 2000여정의 중기관총과 경기관총, 5000만발이상의 탄약, 5만개의 지뢰, 79척의 함정, 20여대의 비행기를 한국피퇴군에 넘겨주었다.

당시 맥아더사령부의 군사전문가들은 이렇게 무장된 한국피퇴군을 두고 《아시아 제일의 군대》, 《인민군쯤은 문제없이 섬멸》 등으로 호언장담하였다. 미국회에서는 《미국식무기로 무장하고 미군장교들에 의하여 훈련된 10만여명의 한국군은 모든 준비를 끝마쳤으며 언제든지 전쟁을 개시할수 있다.》라는 폭언이 울려나왔다.

미제는 조선전쟁에 일본의 군사력과 장개석국민당군대를 동원리용하기 위한 준비도 면밀하게 추진하였다.

1949년 8월초 리승만도당과 장개석도당사이에 조선전쟁발발시 국민당《정부》가 비행기와 함선, 각종 무기, 탄약을 제공하고 군사인원들을 한국피퇴군군복을 입혀 참전시킬데 대한 밀담이 진행되고 1950년 2월중순에는 도쿄에서 맥아더와 리승만, 요시다사이에 조선전쟁에 대비한 군사동맹관계수립을 둘러싸고 논의판이 벌어졌다.

미제는 38° 선일대에 한국피퇴군을 증강배치하였으며 1950년 6월 11일 후부터 특별경계령을 하달하고 완전한 공격태세로 이행시켰다. 전쟁사환군인 딜레스를 피퇴한국에 파견하여 한국피퇴군부대들의 준비상태를 최종검열하고 전쟁개시날자를 1950년 6월 25일로 확정하였다.

날날이 드러난 침략자의 정체

침략준비가 완비된 후 맥아더는 리승만을 도쿄에 불러들여 전쟁도발과 관련한 11개 조항의 특별지시를 주었다. 그 지시에는 한국피퇴군의 모든 무력은 맥아더의 지휘밑에 둔다는것, 리승만은 전쟁을 개시하는 역을 담당해야 한다는것, 피퇴한국과 일본이 협동하여야 한다는것, 한국피퇴군은 이전 일본군대에서 채용된 장교들한테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것 등이 지적되어있었다.

미제는 리승만에게 이와 같은 훈령을 주고 전쟁의 불을 지를것을 명령하였다.

1950년 6월 25일 이른새벽 한국 피퇴군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

조선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미제는 사전계획대로 허위와 기만으로 일관된 피퇴한국주재 미국대사와 《유엔조선위원단》의 보고라는것을 유엔에 제출하고 그에 기초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하였다. 그리고는 확인조차 하지 않은 허위보고자료에 근거하여 우리 공화국을 《침략국》으로 규정하고 우리 군대의 철퇴를 요구하는 《결의》 제82호를 강압적으로 조작해냈다.

6월 27일 미국의 요구에 따라 다시 열린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에서 미국대표는 조선인민군의 반공격을 《유엔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묘사하면서 《무장공격을 물리치며 그 지역에서 세계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한국에 줄것을 유엔성원국들에 권고한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내놓았다. 피퇴한국에 대한 유엔성원국들의 《원조》란 곧 미국의 대대적인 무력간섭과 추종국들의 조선전쟁참전이였다. 이날 미제는 조선에 대한 무력간섭을 허용하는 결의안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83호로 채택되게 하였다.

7월 7일에는 피퇴한국에 군사적지원을 제공하는 추종국가들의 무력을 《미국지휘하의 연합사령부》의 관할하에 두며 유엔기발을 사용할것을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조작하였다.

이 결의안에는 《유엔군》을 파견한다거나 《유엔군사령부》를 설치한다는 표현조차도 없었다.

하지만 미제는 교묘한 방법으로 《연합사령부》를 《유엔군사령부》로, 저들의 침략군을 《유엔군》으로 둔갑시켰다.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를 《유엔군사령관》으로 겸임시키고 도쿄에 있는 미국동군사령부를 《유엔군사령부》로 변신시켰으며 조선전쟁에 투입되는 미군과 추종국가군대들에 《유엔군》의 모자를 씌워놓았다.

이렇게 미제는 비법적으로 조작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에 빙자하여 조선전쟁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였으며 저들의 전투행동이 마치도 유엔의 사명에 따라 유엔에 의하여 진행되는 《방어적》인것처럼 미화분식하였다.

침략전쟁에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기 위하여 미제가 날조해낸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은 전적으로 미제의 각본에 따른것으로서 완전한 비법이며 유엔헌장에 대한 란폭한 유린행위로 된다.

6월 25일 유엔주재 미국대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저들에 의해 조작된 허위보고를 읽어주면서 안전보장리사회를 긴급소집하여야 한다고 계속 들이대었다.

미국의 손탁에 놀아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조선전쟁발발의 진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도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사태를 일방적으로 외곡하여 제기한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비법적인 《결의》들이 채택되었다.

미국은 당사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괴뢰한국 대표만을 회의에 초청하여 저들의 주장이 담긴 《결의》들을 채택하도록 조종하였다.

유엔헌장 제 27 조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들은 모든 상임리사국들의 찬성을 포함하여 리사국들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채택된다고 규제하고 있다.

조선전쟁과 관련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은 상임리사국인 소련의 참가없이 비법적으로 채택되었다.

당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기능이 마비상태에 있는것과 판된다.

소련은 1950년 1월부터 7월말까지 중국의 대표권을 대만당국이 행사하고있는데 대한 항의로 안전보장리사회 회의참가를 거부하고있었다.

이를 좋은 기회로 삼아 미국은 조선전쟁과 관련한 결의안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갔던것이다.

소련은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전보에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가 자국의 참가없이 채택되었으므로 법적효력이 없으며 유엔헌장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된다는것, 《결의》는 유엔기발이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미국의 침략적인 군사작전을 가리우는 허울로 도용되도록 하고있다는것, 따라서 소련정부는 안전보장리사회 《결의》가 비법적이고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무력침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된다는것을 명백히 밝혔다.

미제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이름을 도용하여 흑백을 전도하려 하였지만 사실을 감출수 없었다.

미국도서들자체가 실제로 전쟁이 시작된 시기는 조선측의 견지에서 볼 때 대단히 부적당한 시기였다고 하면서 우리의 《기습설》에 의문을 표시하였다.

조선전쟁도발에서 주역을 맡았던 맥아더도 후날 《이 전쟁은 나의 계획이었다.》라고 실토했다.

미제의 전쟁도발로 우리 인민과 군대는 제국주의무력침공을 격퇴하고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1129일간의 준엄한 조국방위전을 벌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진실은 묻히지 않으며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 미제의 침략각본에 의해 발발한 조선전쟁은 전범자로서의 미국의 정체를 폭로하는 력사적사실로서 영원히 남아있을것이다.

/로동신문



전쟁준비상태를 최종검열하는 덜레스

제 1 회 해란강단오민속문화관광활동 룡정시 개막



19일, 《다채로운 연변, 아름다운 향촌 여행》을 주제로 한 제 1 회 해란강단오민속문화관광활동이 룡정시 지신진 승지촌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행사는 홍색전학, 민족체육, 민속체험, 시골장터, 문예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로 여러 민족 군중과 관광객들에게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특별한 단오명절을 선사했다.

개막식 현장에서는 민족 무용과 노래가 련이어 펼쳐진 가운데 연변주정부 부주장 윤조휘가 징을 울리며 행사 시작을 알렸다. 이어 주덕해생애전시관 제막식이 진행되어 관광객들은 민속 체험과 함께 홍색력사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민족단결 두루마리》 서명 및 축복 행사에서는 래빈들과 여러 민족 군중, 관광객들이 특별 제작된 두루마리에 이름과 축하 메시지를 적었다. 완성된 두루마리는 마을 문화대강당에 보관될 예정이다.

훈훈함으로 가득찬 문화대강당내에서는 《민족단결 쑥떡》 만들기 행사가 한창, 여러 민족 군중들이 둘러앉아 쑥떡을 빚었으며 현장에서 떡메치기와 김치 담그기 등 연변 특색 음식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씨름경기장에서는 열띤 승부가 펼쳐진 가운데 전문가조는 소학부, 중학부, 성인부로 나뉘어 전통 씨름 대결을 펼쳤고 아마츄어조는 관광객들에게 개방되어 전문 선수들의 지도 아래 전통 민족 스포츠의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 중심 보행로에 조성된 《맛집거리》, 《룡정 선물》, 《공예》 등 특별 전시·판매 구역에는 농특산물, 민족공예품, 향토 먹거리가 가득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행사측은 소비 쿠폰 발급과 온라인 생방송 등을 통해 문화적 인기를 소비 활력으로 전환시켰다.

장춘에서 온 관광객 류조하씨는 《아이와 함께 단오를 즐기러 왔는데 쑥떡 빚기, 공연 감상, 다양한 민속 체험이 정말 인상 깊었다. 아이가 전통 단오 문화를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20 일에는 《홍색 화불 전승, 석류알같이 단합된 마음》 청소년 강연대회가 열렸고 21 일에는 가족단위 관람객을 위한 특별 문예 행사가 마련되어 노래와 무용, 시朗송을 선보였다.

/흑룡강신문

료녕성조선족문학회 회장단 《장백산》잡지사 방문

6월 13일, 료녕성조선족문학회 회장단 일행 6명이 《장백산》잡지사를 방문하고 안미영 사장 겸 주필을 비롯한 잡지사 편집진과 리여천 전임 사장 겸 주필, 저명한 평론가인 윤운진 전 길림대학 외국어학원 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문학교류 좌담회를 진행했다.



좌담회에서는 먼저 안미영 사장이 《장백산》잡지사에 대해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1980 년에 창간된 《장백산》은 올해 제 3기까지 이미 루계로 267 기를 펴냈다. 근 반세기를 걸어오는 동안 잡지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원래의 종이잡지외에 《장백산》위챗판, 《장백산》인터넷상가를 개설하여 작가들의 발표원지와 작품의 보급면을 넓혔다. 특히 이미 57 기 펴낸 위챗판 공공계정은 매기 8 만여자의 작품량을 취급하면서 기성 작가들 외에 문학신인양성에 괄목한 만한 성과를 올렸다. 인터넷상가 또한 기성 작가들의 작품 발표량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전자책자를 묶어 진렬, 작품의 보급에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안미영 사장은 《장백산》잡지사에서 2013 년부터 해마다 조직해온 문학세미나를 특별히 언급하면서 올해 상해에서 진행된 《신대중문예와 청년작가의 문학창작》주제행사를 례들어 시종 작가대오건설과 신진작가양성에 주력해왔다고 피력했다.

리여천 전임 사장 겸 주필은 먼저 2006 년 료녕성조선족문학회(당시는 심양시조선족문학회) 회장단의 《장백산》잡지사 방문과 《장백산》잡지 창간 초기 잡지를 료녕신문 인쇄공장을 통해 인쇄했던 상황을 떠올리고 《장백산》잡지사가 2000 년도 이후 8 차 조직

한 문학답사에 료녕의 문인 5명이 참가하면서 좋은 작품들을 창작하였다면서 《장백산》잡지사와 료녕의 문인들간의 끈끈한 인연을 강조했다.

윤윤진 평론가는 료녕성조선족문학회 전정환 회장을 비롯하여 료녕문인들의 수필작품을 특별히 언급, 산재지구에서 수필창작의 독특한 풍견선을 이루고 있다고 피력했다.

료녕성조선족문학회 전정환 회장은 료녕의 작가들에게 있어서 《장백산》잡지가 갖는 비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면서 지금까지 료녕 작가들의 문학작품 창작에 많은 관심을 돌려준 데 감사를 표하고 향후에도 료녕작가들의 문학창작에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기를 부탁했다. 동시에 그는 《장백산》잡지가 제 3회 국가간행물상 백종중점잡지, 제 1회 북방우수잡지, 제 1회 및 제 4회 전국당대소수민족문학연구정원상, 제 5회 및 제 6회 중국조선문신문출판문화대상 우수잡지상 등 굵직한 상들을 수상하며 이룩한 성과들을 떠올리고 특히 최근년간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장백산》잡지사가 독창적으로 개설한 위챗판이 갖는 의의와 영향력을 충분히 긍정했다.

이어 료녕성문학회 회장단 성원들과 《장백산》잡지사 편집들 사이 진행된 면대면 문학담론에서는 작가들의 문학창작에서의 고민과 애로, 잡지사와 편집들의 편집 원칙과 편집방향 등 주제들이 폭넓으면서도 심도깊게 논의되었다.

/료녕신문

대련시 조선족민속문화예술공연 열려



5월 30일, 대련시 백운안수공원에서 《대련시 조선족민속문화예술공연》이 열렸다. 행사는 대련시문화및관광국에서 주최하고 대련시조선족문화예술관에서 주관했으며 대련시조선족학교와 대련시조선족기업가협회, 대련시조선족로인협회가 함께 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 및 주관 단체 관계자들을 비롯해 장춘시조선족군

중예술관과 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관, 대련시 여러 민족 대중 등 40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 당일 공원에는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 공동번영을 추진하자》는 프랑카드가 걸렸다. 오전 9시, 대련시문화및관광국 관계자는 축사에서 《경제와 문화는 사회발전의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민족문화를 발전시켜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에 힘을 보태자.》고 전했다.

개막공연은 대련시조선족문화예술관의 무용 《행복꿈을 여는 아박무》로 막을 올렸다. 이어 장춘시조선족군중예술관의 독창 《옹헤야》, 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관의 무용 《환고의 메아리》 등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다.

2부 군중공연에서는 대련시조선족로인협회 소속 분회들이 소합창, 독창, 기악합주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며 제 2의 고향에서 살아가는 조선족들의 삶과 정서를 표현했다. 행사는 금주분회의 농악무로 막을 내렸다.

/흑룡강신문

《인생 후반전, 나는 다시 가수입니다》

국가 1급 가수 최경호, 토크 방송으로 여는 《제 2의 무대》



《사실 그 노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불렀어요.》

국가 1급 가수 최경호(崔京浩), 그에게 가장 잘 알려진 노래를 꼽으라면 단연 드라마 《우리 아버지, 어머니(咱爸咱妈)》 주제가인 〈아버지(父亲)〉 일 것이다. 하지만 정작 그는 이 노래를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먼저 떠올렸다고 말한다.

1963년 흑룡강성 목단강시 목릉현에서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최경호는,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었다. 당시 39세였던 어머니는 홀로 여섯남매를 키웠다고 한다. 그는 그 시절을 이렇게 떠올렸다. 《우리 집은 어머니가 모든 남자들이 해야 할 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지붕도 고치시고 닭장도 만들고 돼지도 키우셨습니다. 특히, 매년 김치움을 만들 때면 어머니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하시다가 너무 힘들고 애가 나면 옆에 있던 대야의 물을 그냥 자기 몸에 퍼붓곤 하셨습니다.》 그런 그가 〈아버지〉를 녹음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도 어머니였다. 《사실 아버지 얼굴도 뚜렷이 기억나지 않고 아버지와 추억도 희미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노래를 부르려니 자꾸 눈물이 났어요. 몇 번이고 녹음을 멈춰야 했죠. 아버지께 대한 구체적인 기억은 없었지만 대신 평생 아버지 뒤통까지 살아내신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어깨너머로 배운 음악이 내 전부였죠.》

그의 음악 인생은 전문적인 교육보다 순수한 열정에서 시작되었다. 어릴 적부터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던 그는 남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따라하며 독학으로 실력을 키웠다. 소학교 때부터 노래 경연에 자주 참가했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그 순간이 가장 즐거웠다고 한다. 그는 《선생님을 찾아 배운 적도 없어요. 그냥 좋아서 혼자 연습했고 그게 제 전부였죠.》라고 털어 놓았다.

1981년 내몽골 바카투(博克图)부대에 입대 한 그는 문예병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당시를 회상하며 그는 《내가 노래한다는 소문을 들은 부대 관계자들 덕분에 부대 내에서도 노래 잘하는 팀으로 옮겨 다니며 실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웃으며 말했다. 제대 후 고향인 목릉현문공단에 몸담았고 1987년에는 할빈시조선족예술단으로 자리를 옮겼다. 같은 해 전국 《오주배(五洲杯)》 청년가수 TV 경연에서 통속부문 3등상을 수상했고 이후 1992년에는 전국 《가왕가후(歌王歌后)》 성악 경연 통속부문 가왕상, 전국 《화흥배(华鑫杯)》 성악 경연 통속부문 1등상, 전국 소수민족 성악 경연 통속부문 1등상을 잇달아 휩쓸었다. 1993년부터 중국 대중음악계의 거장인 곡건분(谷建芬) 작곡가를 스승으로 만나 지도를 받으며 본격적인 가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창법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서 정통은 아닐지 몰라도 오랜 시간 혼자 익히며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변 음악인들의 평가는 다르다. 그의 음색과 리듬감은 매우 독특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음악인은 《저음과 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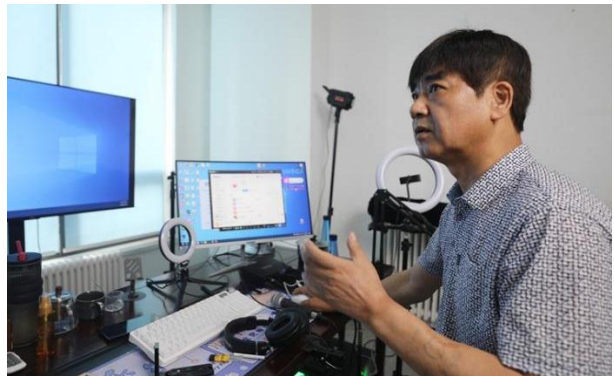
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리듬감도 타고났다. 노래를 듣는 순간 바로 최경호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징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이런 독특한 매력으로 그는 드라마 《삼국연의》 삽입곡 《강상행》, 《서유기》 속편의 《통천대로 넓고도 넓네》(通天大道寬又闊) 등 굵직한 대작 드라마들의 주제곡을 불렀다. 드라마 《삼국연의》는 주제곡만 15곡이었고 그중 3곡이 그의 몫이었다. 그는 《중국의 역사적인 대작 드라마에 조선족인 나를 불러 준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었어요. 경쟁도 치열했기에 자부심도 더욱 컸어요》라고 말했다.

《노래로 받은 사랑, 다음 세대가 꿈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최경호의 이름 앞에는 《가수》라는 직함 외에 《애심 활동가》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 붙는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이웃과 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1996년 첫 개인 콘서트 수익금 전액을 흑룡강성 오상사범학교에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1998년 목단강에서 홍수 의연 공연을 열고 당시 기준으로 적지 않은 200 만원을 재해민들에게 기부했다. 2003년 연변에서 《사랑으로 가는 길》 자선공연을 열었고 당시 수익금 전액으로 연변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 1,248명을 지원했다. 그 중 215명은 대학 신입생이었다. 그는 《1년만 돕고 그만두면 아이들이 또 학업을 포기할 수 있으니, 졸업할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했다.》고 터놓았다. 이어 《나중에 사회인이 된 아이들이 직접 찾아와 감사 인사를 하기도 하고 명절이면 그 아이들이 곳곳에서 전화를 걸어온다.》고 전했다. 그의 선행과 예술 활동은 국내에 그치지 않았다. 2002년부터 여러 차례 평양 공연을 통해 중조 문화 교류에도 조용히 힘을 보탰다.

《민족적인 것이 바로 세계적인 것,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싶어요》

은퇴 후 북경에서 지내던 그가 다시 대중 앞에 선 것은 틱톡(抖音)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였다. 주변의 만류도 많았다. 《이 나이에 그걸 해서 뭐 하느냐》는 말도 들었던다. 그러나 그는 《어릴 적부터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하는 것은 노래밖에 없었다. 내 생명과도 같은 노래를 계속하는 것이 행복하다.》며 장춘에 새로운 등지를 틀고 방송을 시작했다. 뽀뽀한 방송 일정은 그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목 관리를 하고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즐겼어요. 방송을 제대로 하려면 몸이 받쳐줘야 하니까요.》라며 씩스러운 듯 웃었지만, 그 말 속엔 방송을 대하는 진지함이 배어 있었다. 50~60대 팬들이 주를 이루는 그의 방송은 한 번 시작하면 2시간이 넘도록 자리를 지키는 관객들로 인해 금시 혼 혼한 소통의 장이 된다.



앞으로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데 그치지 않고 조선족의 음식, 폐절 등 잊혀 가는 전통 문화를 짧은 영상으로 소개하고 싶다고 전했다. 《요즘 조선족 결혼식도 서양식으로 하고 장례식도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내가 큰 영향력은 없어도 <민족적인 것이 바로 세계적인 것>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꾸준히 알리려 합니다.》 그는 예전의 화려했던 무대와 의연 활동은 모두 《지난 일》이라고 담담하게 선을 그었다. 《내 인생의 후반전, 이제는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0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은 여전히 두렵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 부딪쳐 보고 싶습니다.》

/길림신문

활기있게 발전하는 중국의 경제

오늘 중국인민은 습근평총서기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건설하는 두번째 백년목표를 향한 역사적로정을 이어가고있다.

올해는 제 15차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이다.

중국당과 정부는 제 15차 5개년계획기간을 사회주의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전면적으로 마력을 내는 관건적인 시기로 정하였다. 이 기간 생산과 건설에서 높은 질적발전을 이룩하고 과학기술에서의 자립수준을 대폭 높이며 인민생활의 질을 부단히 개선하는것을 경제발전의 주요목표로 내세웠다.

중국당과 정부는 경제발전에서 당의 전면적인 령도와 인민지상주의, 높은 질적발전, 발전과 안전의 통일적인 계획 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다.

수자경제를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그 강화에 큰 힘을 넣고있다. 수자경제건설에서 부닥치고있는 도전과 난관들을 이겨내고 뒤흔어진 지방과 부문들을 추켜세우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경제발전수준을 높이는것을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인공지능기술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그 일환이다.

제 15차 5개년계획에는 인공지능기술발전과 관련한 포괄적인 실행방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 나라의 인공지능도입시장규모는 2030년경에 4000억 RMB.Y에 달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2035년에 가서는 1조 RMB.Y을 넘어설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시와 상해시, 광둥성 등 여러 지역이 인공지능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계획들을 작성하고 실행하고있다. 우주개발사업에서 큰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최근에 만도 주천위성발사센터에서 《장정-2호 F요 23》운반로켓으로 《신주 23호》유인우주비행선을, 태원위성발사센터에서 《장정-6호》개량형운반로켓을 리용하여 《천범극궤 11조》위성을, 문창우주발사장에서 《천주 10호》화물운반우주비행선을 쏘아올렸다. 지적소유권보호를 위한 사업도 중시되고있다.

최근 중국의 해당 기관은 지적소유권제도를 보완하고 지적소유권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반영된 중점임무를 포치하였다.

중국에서 고속철도는 전국적판도에서 인재, 기술 등 생산요소들의 효율높은 류동과 최적화된 배치를 촉진하고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고속철도의 길이가 제일 긴 나라이다. 앞으로 2030년까지 중국의 철도길이는 약 18만 km에 달하게 되는데 그중 6만 km 정도가 고속철도구간으로 될것이라고 한다.

농업생산과 농촌현대화건설에서도 진전이 이룩되고있다.

지난해말에 진행된 중앙농촌사업회의에서는 새시대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당 제20차대회와 제20기 당중앙위원회 여러 전원회의정신을 심도있게 관철하여 농촌의 전면적진흥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도시와 농촌의 융합적발전을 추동해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중국정부는 현소재지를 중요거점으로 하는 도시화건설과 향, 촌의 진흥, 알곡생산을 늘이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최근 습근평총서기는 세소상품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하여 대외무역수출액이 전국의 현 및 시, 구들가운데서 첫자리를 차지한 의오시의 발전경험을 현급지역의 실정에 맞는 성공적인 실천으로 평가하면서 널리 일반화할것을 지시하였다.

중국은 2035년까지 나라의 경제력과 과학기술력, 국방력, 국제적영향력을 대폭 끌어올리고 1인당 국내총생산액을 중진국들의 수준에 이르게 하려 하고있다.

당과 정부의 관심과 조치들 그리고 인민들의 창조적노력과 투쟁에 의해 중국의 경제는 더욱 활기를 띠고 발전하고있다.

/인민넷



중국이 6월 4일 19시 39분 태원위성발사센터에서 《장정-6호》 개량형운반로케트로 《천범극궤 11조》 위성을 성과적으로 발사하였다.

홍색근맥을 굳건히 지키고 홍색유전자를 전승해

한여름의 섬복, 이른 아침의 해살이 나무가지를 넘어 양가령 혁명옌터 중앙대례당의 푸른 벽돌과 회색 기와 위로 내려앉는다.

연안은 중국혁명의 성지이며 새 중국의 요람이다. 토굴, 책상, 붓과 벼루, 기름등잔... 하나하나의 물건마다 력사의 흔적이 새겨져있고 격동의 세월을 간직하고 있는바 많은 관광객들이 각지에서 찾아와 참앙하고 있다.

2022년 10월, 습근평 총서기는 연안혁명기념지를 참앙할 때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연안혁명옌터는 우리 당이 연안시기 중국혁명을 령도하고 맑스주의 중국화, 시대화의 길을 탐색한 빛나는 려정을 목격한 곳으로서 영원히 다 읽을 수 없는 한편의 책이다.

매번 올 때마다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며 새로운 깨우침을 얻고 깊은 교육과 계발을 받게 된다. 양가령의 이야기와 7차 당대회의 이야기를 현실과 결부시켜 잘 들려주기 위해 관리와 연구 사업을 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2023년 5월, 습근평 총서기는 섬서성 당위와 정부의 사업회보를 청취할 때 《섬서는 자체의 력사문화자원과 홍색문화자원을 잘 활용해 위대한 창당정신과 연안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당부를 명기하고 사명을 저버리지 않았다. 최근년간 연안은 홍색자원의 보호와 리용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홍색유전자를 전승하며 홍색혈맥을 끊어지지 않게 이어왔다. 현재 연안에는 혁명옛터 445 곳, 혁명류 기념관 19 개가 있으며 소장하고 있는 혁명문물이 4만 3천여건(세트)에 달한다.

보호를 첫자리에 놓았다.

《예전에는 우기가 되면 비닐천으로 토굴을 덮는 수밖에 없었다.》 양가령혁명옛터 관리자 후진룡 주임이 소개했다.

현재 디지털트윈기반 예방성 보호시스템은 혁명옛터에 《과학기술방패》를 제공하고 있다. 3차원 모델링, 사물인터넷, 복두항법기술 등을 통해 온도와 습도, 토양 수분 등 지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휴대전화를 통해 각종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다.

연안혁명기념관에서는 문물을 창고에서 꺼내지 않고도 《건강검진》과 《치료》를 할 수 있다. 류니 판장은 3차원 레이저스캐닝, 가상현실 등 기술을 리용해 기념관의 디지털화 채집과 자료보관사업을 다그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늘날 연안은 혁명옛터군 안전감독관리지휘플랫폼을 구축해 국가급 문물보호단위 40 곳과 성급 문물보호단위 69 곳에 대한 지능화 감독관리를 실현했다.

보호를 우선시하는 동시에 력사가 《말하게》 해야 한다.

기념관에서 관광객들은 증강현실안경을 착용하고 빛나는 력사를 되새길 수 있으며 혁명문물에 깃든 홍색이야기를 더욱 생동하고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다.

연안 로예문화센터 옆 로예도자기공방에서는 관광객들이 직접 도자기제작을 체험할 수 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정신은 영원하다.

《홍색력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한다.》 연안 조원혁명옛터에서 4학년 학생인 《꼬마해설원》 류정의가 관광객들에게 의무해설을 하고 있었다.

중공중앙 서북국기념관에서도 《꼬마해설원》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10년간 기념관 해설원 라옥은 루계로 2,000여명의 《꼬마해설원》을 양성했다.

홍색혈맥은 대를 이어 전승되고 있다.

2025년까지 연안의 《꼬마해설원》사업은 35년간 이어져왔으며 루계로 2만여명의 《꼬마해설원》을 양성하고 연인수로 36만 7천명의 관광객을 접대했다.

풍부한 홍색자원에 힘입어 연안에는 더 많은 청년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새 시대 청년 연안행》사회실천활동은 대학생들의 《대사상정치수업》으로 되었으며 서연고속철도가 개통, 운영됨에 따라 가족관광과 연학관광 열기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025년 연인수로 5천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안을 찾아 이 《영원히 다 읽을 수 없는 책》을 함께 읽었다.

《책의 무게는 묵직하고 정신은 영원히 이어진다.》 연안시문물국 상무부국장 하동매는 《이 책에서 분발정진하는 힘을 얻어 계속 용감히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민넷-조문판

습근평 총서기의 조선 국민방문, 중조 관계 발전사에서 중요한 이정표적 의의



6월 8일 정오,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은 전용기편으로 평양에 도착하여 조선 국민방문을 시작했다. 조선 민중들은 자발적으로 도로 양쪽에 늘어서서 손을 흔들며 습근평을 환영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의 초청에 응해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은 2026년 6월 8일부터 9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민방문하였다. 방문을 마치면서 중공중앙 대외전략부 부장 류해성은 동행 기자들에게 이번 방문 상황을 소개하였다. 류해성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방문은 습근평 총서기가 7년 만에 다시 조선을 국민방문한 것이며 올해 첫 해외 방문이다. 이는 글로벌 외교가 재차 《중국시각》(中国时刻)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이번 방문은 《중조 우호협조 호상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에 이루어졌다. 가속화되고 있는 백년 변국 및 변혁과 혼란이 얹힌 국제정세 속에서 쌍방 최고지도자는 높은 안목을 가지고 전승과 개척을 통해 공동발전과 공동평화를 도모함으로써 중조 전통 친선에 새로운 시대적 함의와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다. 이는 중조 관계 발전사에서 중요한 이정표적 의의를 가진다. 방문 기간 습근평 총서기는 김정은 총비서와 오랜 시간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엄숙한 정식 회담부터 편안한 산책 대화, 친근한 가정적 교류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쌍방은 중조 관계 발전 대계를 협의하고 두 나라 사회주의사업의 아름다운 미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일련의 중요하고 새로운 공감대를 달성하였다.

김정은 총비서가 습근평 총서기와의 회담에서 밝혔듯이 조선측은 습근평 총서기를 조선인민이 가장 존중하는 귀빈으로 여기고 최대한 성대하고 열렬하게 환영하였다.

김정은 총비서는 직접 공항까지 마중나오고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한 환영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선 방문 일정에 전반적으로 동행하였다. 조선측은 또 이번 방문을 위해 정성스럽게 마련한 훌륭한 문예공연을 편성하였다. 습근평 총서기가 가는 곳마다 모여든 환영 군중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길가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지나가는 차량 행렬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였다. 이러한 장면과 하나하나의 미소는 우리로 하여금 이번 방문에 쏟은 조선측의 정성과 진심, 중국인민에 대한 조선인민의 진실한 우정, 중조 전통 친선의 깊은 저력과 튼튼한 기반을 충분히 느끼게 하였다.

류해성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번 방문은 쌍무 관계에 립각하여 세계를 바라보며 중조 관계의 새로운 전망을 열고 평화발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해주었다. 국내외 여론은 이번 방문을 높은 평가를 하면서 방문 시기가 중요하고 전략적 의의와 영향이 쌍무 범주를 훨씬 초월하였는바 중국의 대국적 역할과 국제적 영향력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인정하였다. 방문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주요 성과는 다음 세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량당, 량국 최고지도자의 방향 제시와 인도는 중조 관계가 시대에 맞추어 발전해나갈 큰 방향을 밝혀주었다. 최고지도자의 전략적 인도는 중조 관계의 최대 강점이자 근본 담보이다.

2025년, 김정은 총비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초청으로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 승리 80돛 기념행사에 참석하였다. 량당, 량국 최고지도자는 회담을 가지고 중조 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1년도 안돼 쌍방 최고지도자는 상호 방문을 실현하여 중조 관계의 시대에 맞는 발전을 더욱 추진하였다. 습근평 총서기는 새시대 중조 관계 발전에 관한 중요한 의견을 전면적으로 설명하면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 전통 친선을 중시하는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한 립장은 변하지 않고 김정은 총비서의 조선 사회주의사업 령도에 대한 확고한 지지도 변하지 않으며 중조 쌍방의 공동 이익과 량호한 전략적 환경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심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은 총비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올해 첫 해외 방문으로 평양에 온 것은 조중 관계에 대한 중시와 친선의 징표로 조선측에 커다란 고무가 된다고 말하였다. 또한 조중 두 나라의 특수성은 단순히 이웃 나라라는 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두터운 전통적 친선과 공동의 리상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소중히 여기고 대대로 계승해온 데 있다고 말했다. 쌍방 최고지도자는 계속해서 회담과 서한, 구두 전달, 특사 파견 등 형식을 통해 밀접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함으로써 중조 관계에 끊임없이 시대적 함의를 불어넣기로 일치하게 합의하였다. 쌍방은 중조 관계 발전과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 수호에 지니는 《중조 우호협조 호상원조 조약》의 중대한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조약 체결 65주년을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결정하였다. 습근평 총서기는 7년 만에 다시 중조우의담을 참배하여 력사를 되새기고 렬사들을 추모하며 친선을 계승하였고 조선 주요 매체에 《지난날을 계승하고 미래를 개척하며 시련 속에서 함께 분발하여 전통적인 중조 친선의 새로운 장을 계속 써나가는》는 제목의 서명문장을 발표하여 중조 관계의 아름다운 미래를 전면적으로 구상하였다.

둘째, 여러 분야에서의 실무협력과 친선교류를 심화하여 중조 두 나라 사회주의사업에 새 동력을 불어넣었다.

중조 두 나라는 공산당이 령도하는 사회주의국가로서 대대로 우호적이고 운명을 함께 하며 서로 돕고 의지하는 것은 언제나 중조 관계의 뚜렷한 특징이다. 습근평 총서기는

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와 제15기 최고인민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김정은** 총비서가 조선 당과 정부, 인민을 령도하여 당건설 강화, 경제 발전, 민생 개선 등 방면에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습근평 총서기는 량당 관계가 중조 관계 발전에 중요한 선도적 역할을 한다며 새로운 형세하에 량당이 각 급별 친선교류를 더욱 활발히 전개하고 당을 관리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경험 교류를 심화함으로써 량국 관계와 사회주의사업 발전의 정치적, 민의적 기반을 끊임없이 공고히 하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습근평 총서기는 또 **김정은** 총비서의 동행하에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참관하고 함께 전나무 한그루를 심었다. 사시사철 푸른 전나무는 중조 친선의 끊임없는 생명력을 상징한다. **김정은** 총비서는 그가 조선로동당 총비서,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된 데 대해 습근평 총서기가 즉각 축하 전문을 보내준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와 제15기 최고인민회의 관련 상황을 소개하고 조선로동당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조선측은 중국공산당 창건 105돐을 앞두고 축하를 표시하면서 중국공산당이 중국인민을 이끌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길에서 새로운 더 큰 성과를 거두기를 축원하고 당 사이 경로를 통해 경험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인민과 함께 현대화의 길로 나아가기 바란다고 하였다. 올해는 중국 《15.5》계획이 시작되는 해이자 조선이 당 제9차 대회의 결정과 배치를 관철집행하는 첫해이다. 쌍방 최고지도자는 향후 중조 여러 분야의 실무협력과 친선교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발전 전략의 대책을 강화하며 경제무역, 농업, 건축, 과학기술, 의료위생 등 실무협력을 확대하고 교육, 문예, 관광, 체육, 매체, 청년, 지방, 자매도시 등 친선교류를 강화하며 높은 수준의 상호 령계를 촉진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편리하게 함으로써 발전 성과가 두 나라 인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마련해주도록 하고 중조 전통 친선의 나무가 더욱 깊이 뿌리 내리고 잎이 무성하게 자라게 하기로 일치하게 합의하였다.

셋째, 시대의 흐름과 력사의 대세를 확실히 파악하여 지역 및 세계 평화발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하였다. 지역의 장기적 안정을 촉진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발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중조 두 나라의 공동한 추구이다. 이번 방문 기간 습근평 총서기는 **김정은** 총비서와 현재 국제 및 지역 정세에 대해 깊이있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백년 대변혁의 시기에 중조는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각자의 주권, 안전 및 발전 리익을 확고히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발전을 공동으로 수호함으로써 두 나라 사회주의사업을 위해 더 나은 외부 조건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은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최근년간 국제사회는 전례없는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습근평 총서기가 제기한 인류 운명공동체 리념과 4대 글로벌 제안은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 심원한 의의를 가지는바 세계 인민들의 지지와 찬사를 받고 있다. 새시대 조중 친선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인민의 선택이자 시대의 요구로서 조선측의 불변한 전략적 선택이자 확고부동한 전략적 의지이다. 조선측은 일관되게 조중 관계 발전을 국가 최대의 제1 전략사업으로 여기고 조중 관계를 국가 관계의 모범으로 발전시키는 데 전력을 다함으로써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동으로 기여할 것이다. 류해성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풍운이 변화하여도 인간사회의 옳바른 길을 굳건히 걸어가고 창해가 출렁이여도 대의를 위해 뜻을 높이 올려야 한다. 중국인민은 항상 력사의 옳바른 편에, 인류문명의 진보 편에 굳건히 서서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각국 인민들과 함께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력사의 대세를 파악하며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인류의 평화와 발전의 숭고한 사업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할 용의가 있다. /신화넷

지난날을 계승하고 미래를 개척하며 시련속에서 함께 전진하여 전통적인 중조친선의 새로운 장을 계속 아로새기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올해는 중조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65
돛이 되는 해입니다.

나는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
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초청에 따라 곧 조선에 대한 국가방
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나는 7년만에 또다시 아름다운 조선을 방문합니다.

나는 김정은총비서동지와 함께 전통적인 중조친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중조관계발전의 원대한 계획을 토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중조 두 나라는 서로 지키고 도와주며 운명을 같이하는 친선
적인 사회주의린방입니다.

전통적인 중조친선은 두 당,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귀중한 재부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여도 전통적인 중조친선은 언제나 불패
의것으로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 세월이 흐를수록 끊임없는 생기와 활력을 내뿜고있습
니다. 최고위급의 전략적인도는 중조관계의 최대의 우세입니다.

력사를 돌이켜보면 중조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은 서로 친근하게 사귀고 허물없이
지냈습니다. 최근년간 나는 김정은총비서동지와 6차례 상봉하고 긴밀한 전략적의사소
통을 유지하면서 중조관계발전의 설계도를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최고령도자들이 방향을 제시하고 키를 잡아주고있기에 중조관계라는 큰 배는 반
드시 바람을 타고 파도를 헤치며 용감히 전진해나가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사회주의라는 공동의 리상은 중조관계의 선명한 바탕색입니다.

중국공산당과 조선로동당은 다같이 맑스주의집권당이며 중조 두 나라는 사회주의길을
함께 걷는 동행자입니다. 나는 두 당, 두 나라가 함께 손잡고 각기 자기 당과 국가위
업의 발전을 추동하고 실무적교류와 협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간다면 반드시 국가의
부강번영을 힘있게 촉진하고 인민들에게 행복과 안녕을 마련해주어 사회주의의 뚜렷한
우세와 밝은 전망을 끊임없이 펼쳐보이게 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운명을 함께 하는 전통적인 친선은 중조관계의 깊고도 두터운 뿌리입니다.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벅찬 세월속에서 중조 두 나라 인민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생사를 같이하면서 피로써 위대한 전투적친선을 맺었습니다.

사회주의위업의 발전로상에서 두 나라 인민은 어깨나란히 굳게 손잡고 고락을 함께

하며 호상 신뢰하고 단결하며 서로 돕는 동지적우정을 생동히 펼쳐보였습니다.

나는 시대의 변천과 국제정세변화의 시련을 이겨낸 전통적인 중조친선이 반드시 대를 이어 줄기차게 계승되고 만고장청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높은 수준의 전략적협조에는 중조관계의 시대적의미가 내포되어있습니다.

지역의 항구적인 안전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것은 두 당, 두 나라,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념원입니다. 쌍방은 호상 국가주권과 안전, 발전리익을 수호하는것을 견결히 지지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녕, 국제적인 공평과 정의 그리고 전후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해나가야 합니다. 나는 중조쌍방이 전략적협조를 부단히 심화시켜 평화와 발전, 협조와 공영이라는 인류사회의 정로를 반드시 함께 성과적으로 걸어나가게 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최근년간 백년이래의 세계적인 변화국면이 급속히 발전하고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뒤엉키는 속에 중조쌍방은 자기 일을 잘하는데 정력을 집중하면서 사회주의길을 따라 곳곳이 전진하며 꾸준히 분투하였습니다.

중국은 제 15차 5개년계획수행의 첫시작을 잘 떼고 중국식현대화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기 위해 분발하여 노력하고있으며 두번째 백년분투목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제9차대회를 성과적으로 소집하여 조선당과 국가의 사업과 발전에 관한 전략적계획을 작성하고 중대한 포치를 진행하였으며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새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키는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시종일관하고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오늘 새로운 력사적출발점에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이한 중조관계는 새로운 시대적사명을 걸머지고있습니다.

중국측은 조선측과 함께 중조관계를 전략적높이에서 틀어잡으로써 중조관계가 시대와 더불어 보다 큰 발전을 이룩하도록 추동해나갈것입니다.

전략적의사소통을 심화시켜 중조관계발전의 정확한 방향을 굳건히 견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당, 두 나라 고위급래왕의 훌륭한 전통을 계승하여 친척처럼 자주 오가며 지내야 합니다.

중조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65돐을 계기로 당과 정부, 군대들사이에 여러 부문과 여러급에서의 의사소통과 교류, 래왕을 강화하고 쌍방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잘 리행함으로써 중조관계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할것입니다.

호상교류를 강화하고 서로 참고하면서 두 나라 사회주의위업의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발전을 함께 추동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길을 바꾸거나 뜻을 변치 말아야 하며 서로가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길을 따라 나아가는데 대해 지지해줌으로써 두 나라의 정치적안전을 확고히 수호해야 합니다.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강화하고 두 당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확대발전시키며 당과 국가건설경험을 깊이있게 교환하고 서로 배우면서 두 나라의 사회주의위업을 더 큰 승리에로 추동해야 합니다.

실무적협조를 확대하고 두 나라 인민의 복리와 우의를 계속 증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두 나라의 발전전략을 결합하고 각 분야의 협조잠재력을 동원하며 기회를 함께 나누고 공동으로 발전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차례지도록 해야 합니다. 령활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친선적인 래왕을 계속 활발히 진행하고 호상리해를 심화시키며 감정의 뉴대를 긴밀히 이어줌으로써 중조친선의 바통이 대를 이어 전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무적인 협조를 밀접히 하고 국제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굳건히 수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략적의사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제와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며 군국주의부활을 꾀하고 지역의 안전과 안정에 위협을 주는 모든 야욕과 책동을 반대해야 합니다.

평등하고 질서있는 세계의 다극화와 보편적혜택과 포용적인 경제세계화를 공동으로 추진하며 4가지 전지구발기를 실천에 구현하고 인류운명공동체건설을 함께 손잡고 추동해야 합니다. 세찬 불길속에서 녹여보아야만 황금의 진위를 가릴수 있듯이 기나긴 세월의 흐름속에서 고비를 함께 넘어보아야만 진정한 벼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동지들과 함께 손잡고 전통적인 중조친선이 보다 눈부신 시대의 빛을 뿌리도록 친선의 새로운 장을 계속 아로새김으로써 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더 큰 기여를 할것입니다.

/연변일보

손야 심양시인민정부외사판공실 주임 마종수 주심양 조선 총령사와 업무회담 개최



최근 손야 심양시인민정부외사판공실 당조서기 겸 주임이 마종수 주심양 조선 총령사와 면담했으며, 다분야 교류협력 심화에 대해 논의했다.

손야 주임은 총령사관이 오랫동안 심양과 조선의 다분야 교류협력 추진에 가교 역할을 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최근 습근평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조선에 국빈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며, 습근평 총서기는 중조 전통적 친선이 양측의 공동 리상과 신념, 분투 목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세대를 이어온 우호와 운명공동체, 상부상조가 언제나 중조 관계의 뚜렷한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습근평 총서기가 중조 관계 발전에 대해 제기한 《4가지 견지》는 신시대 중조 관계 발전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으며, 심양과 조선 지방 간 우호 교류와 실질적 협력에도 새로운 중대한 기회를 가져왔다고 하며, 주심양 조선 총령사관은 심양의 대조선 협력 추진에 있어 중요한 협력 동반자인 만큼, 양국 최고지도자간의 합의 정신에 따라 국경 통상구의 전면 재통행, 민항 항공편과 국제 여객 열차의 운행 재개를 계기로 인적 왕래를 확대하여, 심양과 조선이 경제무역과 인문 등 다분야 우호 교류와 실질적 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종수 총령사는 심양시인민정부외사판공실이 주심양 조선 총령사관 업무에 대해 보여준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양국 최고지도자의 지시 아래 양측은 발전 전략 소통 강화, 수준이 높은 상호연계, 그리고 인적 왕래와 경제무역 교류 편리화 등에 대해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주심양 조선 총령사관은 심양시인민정부외사판공실과 함께 상호 호혜적 경제무역과 인문 교류에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여 양국 관계의 고수준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沈阳外事

파키스탄 대통령, 이란 대통령과 회담

파키스탄 대통령 비서실이 23일 성명을 발표해 파키스탄 대통령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가 래방한 이란 대통령 페제시키안과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양국관계, 지역 평화와 안보, 지역간 상호 연결, 경제협력 등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성명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파키스탄측은 이란이 자국의 평화와 안전, 국가 통일, 주권 및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한다. 파키스탄은 일방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반대하고 대화와 외교 방식으로 지역 및 글로벌 도전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걸프지역 국가들과의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다.

자르다리는 이란과 미국의 양해각서가 성공적으로 체결된 데 축하를 표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기술적 협상이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끌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란 전 최고지도자 고 알리 하메네이의 서거에 애도를 표했으며 파키스탄 대표단은 장례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피로했다.

페제시키안은 평화와 대화를 지지하기 위해 기울인 파키스탄의 건설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했으며 이란은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정치, 경제, 안보 및 지역 문제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페제시키안은 당일 이슬라마바드에서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 무니르를 회견했다. 양측은 양국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역 전체의 평화, 번영 및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延边日报

5. 4 운동

중국에서 선진적인 청년지식인들이 선봉에 서고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참가한 반제 반봉건적인 애국혁명운동이다. 5. 4운동의 동기로 된것은 1919년 1월에 열린 파리강화회의에서 제국주의렬강들이 중국인민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일제의 중국침략을 도와준것이였다. 당시 회의에 참가한 중국대표는 제국주의렬강들이 과거에 중국에서 빼앗아낸 모든 리권들을 돌려주고 일제가 중국에 강요한 《21개조》를 폐기할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미, 영, 프제국주의자들은 그 요구를 모조리 거부하고 산둥지방의 리권을 일제에게 넘겨줄것을 결정하였으며 중국의 반동군벌정부는 이 치욕적인 결정을 접수하려고 하였다. 이는 광범한 중국인민의 격분을 자아냈다. 먼저 프랑스에 있는 중국류학생들이 들고일어나 중국대표가 강화조약에 조인하지 말것을 요구하였다. 1919년 5월 4일 베이징대학을 비롯한 베이징의 각급 학교의 학생들이 투쟁에 나섰다.

3 000여명의 청년학생들은 천안문앞에 모여 《21개조를 폐지하라!》, 《조약체결을 거부하라!》, 《매국역적을 처단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시위를 벌렸다.

반동정부가 탄압에 나서자 베이징의 청년학생들은 총동맹휴학으로 넘어갔으며 5월 6일 《베이징중등이상학교학생련합회》를 조직하고 전국의 청년학생들을 투쟁으로 호소하였다. 천진, 보정, 상해, 남경, 무한, 복건성, 산서성, 섬서성, 절강성, 강서성 등 여러 지역의 청년학생들이 호응하여 투쟁에 떨쳐나섰다. 6월 3일-4일 반동정부는 1 000여명의 학생들을 체포투옥하였다. 6월 3일 이후 학생운동의 중심은 베이징에서 상해로 옮겨지고 로동계급이 점차 투쟁의 주요력량으로 되었다. 6월 5일-11일 상해의 6만~7만명의 로동자들이 파업을 단행하였다. 각지의 상인들도 문을 닫고 이에 합세하였다. 투쟁이 전인민적운동으로 확대발전되는데 질겁한 반동군벌정부는 체포된 학생들을 석방하고 강화조약조인을 거부한다는것을 선포하지 않을수 없었다.

5.4운동은 중국의 발전과 진보에 중대하고도 심원한 영향을 주었다. 이 운동후 중국의 정세에서는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에서 선진사상이 급속히 파급되기 시작하였다. 중국로동계급은 독자적인 정치적력량으로 력사무대에 등장하였다.

중국에서는 5월 4일을 청년절로 기념하고있다. 청년절을 맞으며 전국적범위에서 진행되는 여러가지 경축행사들은 중국의 청년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이 사회주의현대화국가건설에 열정, 지혜와 재능을 다 바쳐나가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고있다. /로동신문

世界杯由来



国际足联世界杯(FIFA World Cup),简称“世界杯”,是一项国家级男子足球队之间的国际比赛,由法国人儒勒斯·雷米特于1930年发起创办,并由世界足坛最高管理机构国际足球联合会(FIFA)每4年举办一次,由国际足球联合会旗下会员协会球队参加,是世界足坛规模最大、水平最高的赛事。世界杯奖杯在1930年至1970年为“雷米特杯”,此杯为流动奖品,哪个队得了冠军,就可把奖杯保存4年,到下一届世界杯赛前交还给国际足联,以便颁发给新的世界杯冠军。此外有一个附加规定是:哪个队3次获得世界杯冠军,就可永久拥有雷米特杯。因巴西队三次夺冠,于1970年永久保有。1974年德国世界杯起启用“大力神杯”。

1904年5月21日,国际足联的第一任主席法国人罗贝尔·盖兰,第一次向各国足坛领导人提出了举办世界杯的想法,并责成其秘书长荷兰人希尔施曼为此起草一份文件。但由于表示愿意参加的国家不多,这项计划流产了。第一次世界大战结束后,巴黎红星足球俱乐部的创始人儒勒斯·雷米特先生当选为国际足联主席,他向各国足球界领导人作了大量的说服工作。1925年,乌拉圭外交官布埃罗代表两届奥运会足球冠军得主乌拉圭国家男子足球队,正式对雷米特表示支持,这在当时起了不小的作用。1926年,国际足联卢森堡会议上,把锦标赛的名称改为“雷米特杯赛”,以表彰前国际足联主席,法国人雷米特为足球事业所作出的巨大贡献。

1926년 12월 10일, 국제足联在巴黎召开了一次工作会议, 瑞士、匈牙利、法国、奥地利、德国等许多国家都派代表参加了这次会议。4个月后, 会议的草案被提交给各国足协。

1927년 6월 5일, 在国际足联召开的赫尔辛基会议上, 以 23 票赞成、5 票反对(北欧国家表示反对)、1 票弃权(德国)通过了巴黎工作会议议案。在赫尔辛基的代表会议上, 最终更名为“世界足球冠军杯——雷米特杯”, 简称“世界杯”, 每四年举办一届。

1930 年第一届世界杯在乌拉圭举行, 共有 13 个国家参赛。那时没有预选赛, 所有参赛球队是邀请参加。因为二战的影响, 1942 年及 1946 年两届世界杯停办。1950 年恢复后, 1970 年, 红黄牌和换人制度首次亮相于世界杯赛场。

1974 年世界杯起, 大力神杯登上历史舞台。大力神杯的形象逐渐深入人心, 遂成为足球殿堂的无上荣誉。点球大战规则于 1978 年正式被引入, 1982 年首次出现在世界杯赛场。

除首届世界杯外, 在长达约半个世纪的时间里, 世界杯决赛阶段的规定参赛球队维持在 16 支。在 FIFA 时任主席阿维兰热的推动下, 1982 年西班牙世界杯, 参赛球队从 16 支增至 24 支, 完成了世界杯的首次大规模扩军。1998 年法国世界杯, 决赛阶段的参赛球队再次增至 32 支。1994 年美国世界杯起, 世界杯将赢球两分制改为赢球三分制。

1998 年法国世界杯与 2002 年韩日世界杯, 金球制被短暂引入至世界杯赛场。

2022 年世界杯启用半自动越位识别术。2026 年美加墨世界杯在美国、加拿大、墨西哥举办。这是世界杯历史上第一次由三个国家联合举办。此外, 2026 年世界杯起, 决赛圈扩军至 48 支球队参加。从 1930 年到 2022 年, 世界杯共成功举办了 22 届。只有 8 个国家赢得过世界杯冠军, 分别是巴西 5 次(1958, 1962, 1970, 1994, 2002), 德国 4 次(1954, 1974, 1990, 2014), 意大利 4 次(1934, 1938, 1982, 2006), 阿根廷 3 次(1978, 1986, 2022), 法国 2 次(1998, 2018), 乌拉圭 2 次(1930, 1950), 西班牙 1 次(2010), 英格兰 1 次(1966)。

/선전국

진조한 지역에서도 먹는물을 생산할수 있는 장치

어느한 나라의 화학교수가 희박한 공기중에서도 하루에 1 000L의 물을 생산할수 있는 장치를 발명하였다. 새로운 장치는 습도가 20%이하인 지역들에서도 효과적으로 작용하며 이것은 심각한 물부족문제에 직면해있는 지역들에 도움을 줄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장치에서 중요한 요소는 금속유기골조체(MOF)이다. 이것은 다공성 합성재료로서 마치 선진적인 해면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재료들은 거대한 표면적을 가지도록 분자규모에서 조작되었다. 공기가 장치를 통과하면 금속유기골조체들은 물분자를 작은 공간들에 잡아둔다. 태양빛이나 낮은 온도의 열에너르기에 의해 가열되면 재료는 잡아둔 물분자를 증기로 방출시키게 되는데 그것은 액체상태의 물로 응축되게 된다. 대기중에 있는 물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장치들은 공기를 냉각하는데 상당한 량의 전기를 소모한다. 이와 달리 새로 개발한 장치는 태양열만을 리용한다.

해양주변에 있는 지역들에서는 탈염방법이 흔한 해결책으로 간주되어왔지만 그것은 에너르기를 많이 소모하고 해양생태계에 피해를 줄수 있는 대단히 짙 부산물을 산생시킨다. 개발한 물포획장치는 휴대하기도 좋고 친환경적인 대용품으로 된다. 장치는 태풍 피해를 입은 외진 섬지역들과 사막지역들에 설치될수 있을것으로 보아진다.

태양빛전지판이 집집마다에서 자체의 전력을 생산할수 있게 하는것처럼 금속유기골조체에 기초한 이러한 장치는 언제인가는 매 가정들에서 자체로 먹는물을 생산할수 있도록 할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73 살의 승병장 서산대사



임진조국전쟁시기 평양성탈환전투에서 이름을 떨친 사람들중에는 중출신의 애국적의병장 서산대사(1520-1604)도 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최현웅인데 서산대사로 널리 알려지게 된것은 묘향산 즉 서산에서 오래동안 대사(봉건국가에서 불교 선종계통의 높은 급의 중에게 주는 칭호)였기때문이다.

서산대사는 리조봉건통치가 부패하여 당파싸움이 날로 우심해지고 인민들이 도란에 헤매던 시기에 안주고을의 가난한 량반가정에서 출생하였다.

용맹하고 령리하여 서당에서 글과 무예를 누구보다 높은 수준에서 체득하였으나 그는 어지러운 판로계에서 벼슬할 생각을 단념하고 전라도 지리산에 들어가 중이 되었다. 이때부터 대사는 우리 나라의 명승지를 돌아다니면서 아름다운 조국강산을 시에 담아 노래하였고 큰절의 이름있는 학자중들을 찾아다니며 불교공부를 착실히 하여 30 대에 벌써 수양이 깊고 지위가 높은 중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봉건통치배들의 부패무능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방비가 약해진 틈을 타서 1592년에 일본침략자들이 불의에 침입해왔을 때 서산대사는 73살의 고령이었다. 그러나 남달이 애국심이 강한 그는 사랑하는 조국강토가 왜적에게 짓밟히는것을 보고만 있을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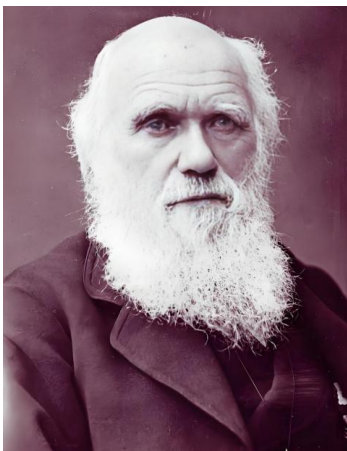
리조봉건정부로부터 전국 8도중들을 총지휘할 권한을 가진 승병(중들로 무어진 의병대오)의 총사령관격인 《8도선교16종도총섭》으로 임명된 사산대사는 곧 전국의 중들에게 《늘고 병들어 싸울수 없는 자는 모두 거처하는 절간에 남아서 조국수호와 왜적격멸을 위하여 정성껏 기도를 올리며 싸울수 있는 장정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기를 들고 의병에 걸기하라!》고 호소하였다.

이때 일부 중들은 《살생》이 불교의 계율과 어긋난다고 하면서 싸움에 나서기를 꺼려했다. 서산대사는 《불교에도 조국이 있다. 조선의 불교도들은 조선을 위해, 일본의 불교도들은 일본을 위해 복무하는것이다. 일본중들이 침략자들의 길잡이가 되어 날뛰는 이때 <살생>의 원흉인 왜적을 쳐없애는 싸움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불교의 계율에 어긋나는것이며 겨레에게 죄되는 행동이다. 중도 이 나라의 백성이라는 본분을 잊지 말아라.》고 하면서 그들을 왜적격멸의 길에 일떠세웠다. 서산대사의 불같은 호소와 통첩을 받은 전국각지의 중들은 한결같이 호응하여 의병투쟁에 나섰다. 금강산 유점사에서 사명당이 700여명을, 호남지방에서 처영이 1,000여명의 중들을 이끌고 싸움

에 나섰고 공주, 진주, 의암 등 온 나라의 중들이 일떠섰다. 그리하여 전국적으로 중의병들의 수는 수만명에 달하였다. 1953년 1월 6일, 평양성탈환을 위한 전투가 시작되자 서산대사는 승병을 거느리고 모란봉일각에 돌입하여 적진을 갈라놓음으로써 우리 군대의 진격로를 개척하여 전투의 승리를 보장하는데 큰 공로를 세웠다. 그는 1604년 1월 23일 묘향산 원저암에서 85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중도 이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고령의 나이에 불구하고 앞장에 서서 왜적을 몰아내는데 커다란 공헌을 한 서산대사의 이름과 위훈은 우리 인민들속에 길이 전해지고있다. /천리마잡지

达尔文



查尔斯·罗伯特·达尔文是英国生物学家，进化论的奠基人，对动植物和地质结构等进行了大量的观察和采集。出版《物种起源》，提出了生物进化论学说，从而摧毁了各种唯心的神造论以及物种不变论。19世纪最伟大的博物学家之一，进化论的提出者，推翻了神造论和物种不变论的查尔斯·罗伯特·达尔文，恩格斯把进化论誉为19世纪自然科学的三大发现之一。

查尔斯·罗伯特·达尔文于1809年2月12日出生在英国小城什罗普郡的一个富有的贵族医生家庭，是家中六个孩子中的第五个。这个家庭位于小镇什鲁斯伯里。达尔文从小喜欢在自己家的花园里观察收集花草昆虫。8岁时母亲去世。在什鲁斯伯里私立中学就读时，特别喜欢博物学，化学，自然科学，经常到野外采集动植物标本。他的祖父和父亲都是当地的医生，家里希望他将来继承祖业。父亲在1825年，达尔文16岁时把他送到爱丁堡大学学医。达尔文无意学医，经常到野外采集动植物标本并对自然历史产生了浓厚的兴趣。进入大学第二年，达尔文加入了专注于博物学的学术团体-普林尼学会。他还经常到隔壁的生物系听课。在爱丁堡大学学了两年之后，达尔文跟父亲说实在受不了那种手术的环境，不想学了，

拗不过儿子的父亲于1828年送他到剑桥大学，转学神学，希望他将来成为一个“尊贵的牧师”，这样，他可以继续他对博物学的爱好而又维持家族体面，但是达尔文对自然历史的兴趣变得越加浓厚，完全放弃了对神学的学习。

在剑桥期间，达尔文结识了当时著名的植物学家J. 亨斯洛和著名地质学家席基威克，并接受了植物学和地质学研究的科学训练。

1831年毕业于剑桥大学后，他的老师亨斯洛推荐他以“博物学家”的身份参加同年12月27日英国海军“贝格尔”舰环绕世界的科学考察航行。

先在南美洲东海岸的巴西、阿根廷等地和西海岸及相邻的岛屿上考察，然后跨太平洋至大洋洲，继而越过印度洋到达南非，再绕好望角经大西洋回到巴西，最后于1836年10月2日返抵英国。

这次航海中达尔文带回了大量的物种标本和动物学和地质学笔记，也改变了达尔文的生活。回到英格兰后，他一直忙于研究，立志成为一个促进进化论的严肃的科学家。有一次，他偶

然读了 T. 马尔萨斯的《人口论》，从中得到启发，更加确定他自己正在发展的一个很重要的想法：世界并非在一周内创造出来的，地球的年纪远比《圣经》所讲的老得多，所有的动植物也都改变过，而且还在继续变化之中，至于人类，可能是由某种原始的动物转变而成的，也就是说，亚当和夏娃故事根本就是神话。达尔文领悟到生存斗争在生物生活中意义，并意识到自然条件就是生物进化中所必须有的“选择者”，具体的自然条件不同，选择者就不同，选择的结果也就不相同。即物竞天择，适者生存。

然而，他对发表研究结果抱着极其谨慎的态度。1842 年，他开始撰写一份大纲，后将它扩展至数篇文章。1858 年，出于年轻的博物学家 R. 华莱士和好友的鼓动，达尔文决定把华莱士的文章和他自己的一部分论稿呈交专业委员会。

1859 年，《物种起源》一书问世，在欧洲乃至整个世界都引起轰动。它沉重地打击了神权统治的根基，从反动教会到封建御用文人都狂怒了。他们群起攻之，诬蔑达尔文的学说“亵渎圣灵”，触犯“君权神授天理，”有失人类尊严。

《物种起源》，表明达尔文的进化论思想和自然选择理论的逐步发展过程。

《物种起源》的出版是一件具有世界意义的大事，因为《物种起源》的出版标志着十九世纪绝大多数有学问的人对生物界和人类在生物界中的地位的看法发生了深刻的变化。

初版 1250 册当天即告售罄。以后达尔文费了二十年的时间搜集资料，以充实他的物种通过自然选择进化的学说，并阐述其后果和意义。

1860 年 1 月 7 日，达尔文为了著写《动物和植物在家养下的变异》一书而开始整理笔记。春季开始，他在居所附近的田野和堤岸以及位于苏塞克斯郡的沼泽进行了多次野外考察，仔细研究了报春花属植物、兰科植物以及食虫植物。

1868 年初，出版了《动物和植物在家养下的变异》。达尔文自评在这部书中，“列举出自己的一切观察资料 and 大量从各方面收集到的有关家养生物的事实。

紧接着，达尔文又开始他的第二部巨著《动物和植物在家养下的变异》的写作，以不可争辩的事实和严谨的科学论断，进一步阐述他的进化论观点，提出物种的变异、遗传，生物的生存斗争、自然选择的重要论点，并很快出版这部巨著。在这部书的第二卷中，根据当时所能达到的知识水平情况，对变异和遗传等的因果和法则方面，进行了讨论。在这部著作的末尾，提出了自己的泛生论假说。

1871 年 2 月，出版了《人类的由来》。达尔文在这部著作的自评中写道：“多年以来，我一直在搜集与人类起源或由来的各种资料，但最初我完全没有在这个题目上发表任何东西的意向，甚至可以说正相反，我倒是有不发表任何东西的决心，因为我想到发表的结果无非是火上浇油般地增加外界对我的成见。” 1872 年，出版了《人类和动物的表情》。

晚年的达尔文，尽管体弱多病，但他以惊人的毅力，顽强地坚持进行科学研究和写作，连续出版了《人类的由来》等很多著作。达尔文本人说过：“我一生中主要的乐趣和唯一的事业，是我的科学著作。

还有一些在旅行中直接考察得到的最重要的科学成果。”如：达尔文本人所写的著名的《考察日记》和《贝格尔号地质学》、《贝格尔号的动物学》等。1882 年 4 月 19 日，这位伟大的科学家因病逝世，恩格斯说《物种起源》是三大发明之一。

人们把他的遗体安葬在牛顿的墓旁，以表达对这位科学家的敬仰。

达尔文于 1839 年与艾玛结婚、生下子女。

/선진국

파키스탄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은 남아시아서 북부에 자리 잡고 있다.

동부는 인디아, 북동부는 중국, 북부와 서부는 아프가니스탄, 이란과 국경을 접하고있고 남부는 아라비아해에 면하여있다.

면적은 79 만 6095km² 이고 인구는 2억 4 천만명이다. 수도는 이슬라마바드이다.

전국을 4 개 성과 이슬라마바드수도특구로 나눈다. 《파키스탄》이란 우르두어로 《사원의 나라》라는 뜻이다.

산지와 고원이 령토면적이 5 분의 3 을 차지한다. 서북부 및 북부고산지구는 히말라야 산줄기와 힌두쿠쉬 산줄기로 이루어졌으며 해발높이는 3500 m 이상이다. 그중 페리츠미르산은 해발높이가 7690 m 로서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며 인두쓰강의 중요수원이기도 하다. 서부와 서남부의 발루치산지, 쏘라이만산줄기, 끼르타르산줄기는 고원과 인두쓰평원과의 천연경계선을 이루고있다. 인두쓰평원은 남북길이 1200km, 동서너비 550km 이다. 평원의 동부는 타르사막이다. 아열대철바람기후의 영향을 받는 서부연해지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지구가 아열대의 건조한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건조하고 더운데 썬드성북에는 6 월평균기온이 36.5℃도, 최고기온이 52.2℃도로서 《남아시아의 열점》이라고 불리운다.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각이한데 북부고산지구에서는 주로 봄과 여름에 비가 내리며 년평균강수량은 1000-1500 mm이다. 썬드평원지구의 년평균강수량은 100-200 mm이다.

주민구성을 보면 뽀자브족(66%), 썬드족(13%), 빠탄족(푸슈트족. 11%), 발루치족(4%) 외에 페르샤인, 오리야족, 부라후이족, 꼬이쓰만족, 칠리쓰족, 카피르족, 바슈카릭족, 가바레족, 가르위족 등 수십개의 민족, 종족들이 있다. 이밖에 영국인들도 일부 살고 있다. 뽀자브족, 썬드족, 빠탄족, 발루치족 등은 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살고있는 다국적민족이다. 국어는 아랍자모를 기초로 하여 만든 우르두어이지만 사용하는 사람은 8%밖에 되지 않는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뽀자브어(56%), 썬드어(12%), 푸슈트어(8%), 발루치어(3%) 등이다. 정부기관들에서는 영어를 사용한다. 10 세 이상 사람들의 문맹자가 37%를 차지한다,

국교는 이슬람교(97%)이다. 대부분이 순니파이고 약간의 시아파가 있다.

파키스탄국적을 가진 주민전체를 파키스탄인이라고 한다.

B. C 4 세기부터 A. D 5 세기경까지 오늘의 파키스탄경내에는 노예제국가, 초기봉건국가가 세워졌다. 7세기 후반기에 아랍족의 침입과 함께 이슬람교가 들어오게 되었다. 1757 년부터 영국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았으며 1858 년에 영국식민지로 되었다. 1947 년 파키스탄과 인디아는 분리되어 제각기 독립하였다. 1956 년 헌법을 발표하여 나라이름을 정식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라고 하였다. 1971 년 3 월 동부파키스탄이 독립하여 방글라데슈국가를 형성하였다.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80%이상이 농업에 종사한다. 주요농작물은 벼, 밀, 목화, 사탕수수 등 4 대작물과 그밖에 조, 수수, 유채, 황마 등이다. 목축업도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주요집짐승은 소, 염소, 락타 등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석회석, 크롬, 천연가스, 석탄, 철, 우라늄, 류황 등이다. 주요공업부문은 방직공업, 기계공업, 강철공업, 세멘트공업, 원유가공공업, 가죽가공공업, 식료공업 등이다. 운수에서는 해상운수와 철도운수가 중요하다. 주요수출품은 목화, 면실, 면천, 가죽, 양털 등이다. 파키스탄은 이슬람교국가이므로 주민들의 풍습도 이슬람교와 많이 관련되어있다. 남자들은 대체로 양복을 많이 입으나 이와 함께 전통적인 민족옷인 통이 넓은 바지(샬와르)도 많이 입는다. 이슬람교녀자들은 외출할때 보통 부르카를 쓰고 눈만 내놓고다닌다. 최근에 와서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거의나 부르카를 쓰지 않는다. 파키스탄인들은 성격이 활달하고 노래와 춤을 좋아한다.

파키스탄은 국제사회에서 실제적인 인정을 받는 핵보유국이다. 파키스탄은 서북부에 있는 카슈미르령토문제로 인디아와 분쟁이 있어 무장충돌이 여러번 발생하였다. 1972년 11월 9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선전국

세계의 언어수와 종류

1930년대에는 세계의 언어수를 대체로 2000~3000개로 보아왔다. 그후 4200개, 5000개, 5100~5700개정도로 규정한 자료도 있다.

세계의 언어수가 이처럼 서로 다른것은 개별적언어와 한 언어안의 방언의 차이를 가르는것이 쉽지 않기때문이다. 한 언어의 방언도 하나의 언어로 보고 계산하면 언어수는 훨씬 증대되며 반대로 방언을 그 언어에 포함시켜 계산하면 그 수가 줄어든다.

현재 전문가들은 세계의 언어수를 약 6000개로 보는데서 일치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언어에는 몇백명이 사용하는 작은 언어로부터 수억명이 사용하는 큰 언어가 있다. 대부분의 언어는 그 사용인구수가 많지 못한 작은 언어이다.

언어사용인구수가 수천만을 넘는 언어는 15개미만이다. 이런 언어들은 조선어, 중국어, 영어, 힌두어, 에스빠냐어, 프랑스어, 로어, 도이취어, 일본어, 아랍어, 벵갈어, 뿌르투갈어, 이탈리아어 등을 들수 있다. 이 언어들은 60개이상의 나라들에서 쓰이고있으며 세계인구의 3분의 2가 사용하고있다. 세계의 언어수는 수천개이지만 그 언어의 종류는 형태구조적특성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할수 있다. 학자들은 세계의 언어를 교착어, 굴절어, 고립어, 포함어로 구별하고있다. 그 구별은 주로 언어의 문법적요소인 토가 단어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붙는가, 토가 있는 언어인가 아닌가 하는데 기초하고있다.

교착어는 접사가 단어에 붙어 단어의 문법적의미를 표현하는 언어이다.

교착어에서 가장 전형적인 언어의 하나는 조선어이다. 토가 단어에 순차적으로 붙어서 여러가지 문법적의미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이 언어는 로어나 기타 유럽나라 언어들과 구별된다. 굴절어는 굴절의 방법으로 문법적의미를 표현하는 언어이다. 이 언어는 어미가 단어에 붙는것이 아니라 녹아붙어있고 또 어미가 다른 어미로 변하여 여러가지 문법적뜻을 나타내는 특성을 가지고있는 언어이다. 여기에서 가장 전형적인 언어는 로어이다. 고립어는 문법적의미가 어순이나 보조어에 의해 표현되는 언어이다. 이런 종류의 언어에서 대표적인것은 중국어이다. 포함어는 문장이 곧 하나의 단어로, 단어가 곧 문장으로 되는 언어이다. 이런 특성을 가진 언어는 대표적으로 에스키모어, 아메리카인디언어이다. 인디안은 15세기이후 유럽식민주의자들의 침입에 의해 많이 멸족되고 그들의 문화는 여지없이 파괴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말도 그 사용인구수에 있어서 수십, 수백명을 헤아릴 정도로 사멸전야의 상태에 처해있다.



단어발음에서의 말소리변화

발음할 때 형태부의 말소리구성은 말소리들이 놓이는 위치와 결합조건에 따라 일련의 말소리변화를 일으킨다.

일반적으로 말소리변화라고 하면 현행의 말소리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단어발음에서의 말소리들의 규칙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일정한 역사적시기에 작용하였던 말소리법칙에 의해 맞춤법상으로 고착 말소리교체현상들은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므로 흔히 말소리변화로 취급하지 않는다.

단어발음에서 생기는 말소리변화들에는 크게 소리바꾸기, 소리끼우기, 소리빠지기, 소리줄이기의 네가지가 있다.

소리줄이기란 단어안에서 나란히 있는 몇개의 말소리가 줄어서 그보다 적은 수의 말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소리줄이기는 몇개의 말소리가 합쳐져 새로운 제 3의 말소리로 발음된다는데서 어떤 말소리가 빠지고 다른것은 남아서 발음되는 소리빠지기와는 원칙적으로 다르다.

소리줄이기에는 자음줄이기와 모음줄이기의 두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서 모음줄이기는 맞춤법에 반영되므로 발음규범의 논의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자음줄이기란 단어안에 나란히 놓이는 두개의 자음이 줄어서 하나의 다른 말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문화어발음에서 자음줄이기는 주로 단어안에서 터침 및 터스침의 순환소리가 그와 나란히 있는 자음 《ㅎ》과 합쳐져 하나의 거센소리로 발음되는 형태로 일어난다. 이런데로부터 자음줄이기를 거센소리되기라고도 한다.

① 《ㄱ+ㅎ》, 《ㄷ+ㅎ》, 《ㅈ+ㅎ》, 《ㅊ+ㅎ》은 각각 [ㄱ, ㄷ, ㅈ, ㅊ]로 줄어서 발음한다. 《ㅎ+ㄱ》, 《ㅎ+ㄷ》, 《ㅎ+ㅈ》, 《ㅎ+ㅊ》도 각각 [ㄱ, ㄷ, ㅈ, ㅊ]로 줄어든다.

○ 락하산 [라카산] 가득하다 [가드카다] 불히다 [불키다]

말형 [마텃] 꽃향기 [꼬랴기] 앓히다 [안치다]

곱하기 [고파기] 입히다 [이피다] 밟히다 [발피다]

○ 좋고 [조코] 많구나 [만쿠나] 그렇지 [그러치] 탕다 [다타] 앓다 [안타]

② 형태부 《하(다)》의 모음이 빠지면 자음 《ㅎ》이 뒤에 오는 토의 순환소리와 합쳐져 거센소리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맞춤법에 반영한다.

○ 영원하도록 →영원ㅎ도록→영원토록

○ 용하구나 → 용ㅎ구나→용쿠나

○ 혼하지 않다→혼ㅎ지 않다→혼치 않다.



장편소설 **림 껍 정**

일곱의형제의 굳은 결의

홍명희 원작

홍석중 윤색

(전호에서 이음)

양주에서 살고있는 림껍정은 겨우내 아버지의 병때문에 집을 떠나지 못하였다. 봄이 되어 아버지의 병이 조금 돌아서자 이번에는 백정촌사람들과 최생원이라는 량반집과의 복잡한 말썽에 끼여들어 꼼짝달싹을 못하게 되었다.

양주에도 함흥처럼 백정들이 모여사는 백정촌이 있었다. 함흥의 백정촌사람들은 버들고리를 엮는 고리백정이지만 양주의 백정촌사람들은 농사를 지었다.

원래 백정들은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이 언제부터 진땀을 풀어 논을 만들었는지는 모르나 벌써 몇해째 농사를 지어왔다. 그들이 가지고있는 논은 진땀자리의 수렁논이어서 벼가 잘되지 않았다. 그런데 몇해째 가물이 들어 평지의 좋은 논은 다 녹아났으나 백정촌의 수렁논에는 벼가 쓰러지게 잘되었다.

이렇게 되자 한다하는 읍내의 량반들과 지주들은 저마다 백정촌의 수렁논을 넘겨다보며 닭알침을 삼켰다. 그중에서도 읍내 량반들의 우두머리노릇을 하는 최생원이 제일 눈독을 들였다. 그놈은 끝내 판가를 끼고 말썽을 일으켰다.

걱정은 백정촌사람은 아니었지만 같이 천대받는 신분의 백정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백정촌사람들은 그들대로 앉아서 논을 빼앗기게 되자 걱정에게 도움을 청했다. 왜냐하면 걱정이 비록 패랭이를 쓰고 백정노릇을 하고있기는 하지만

량반들도 마구 대하지 못할만큼 인품이 있었기때문이었다. 이렇게 되어 걱정이 백정촌사람들과 최생원과의 말썽에 뛰어들게 되었던것이다.

최생원한테서 퇴물을 먹은 양주군수는 백정촌사람들에게 논을 내놓으라고 령을 내렸다. 군수의 말인즉 백정들이 함께 모여사는것은 우선 나라법에 위반될뿐 아니라 백정들이 본래의 일을 버리고 농사를 짓는것도 허락할수 없는 일이니 논을 내놓고 흩어져 살라는것이였다.

백정촌사람들은 걱정의 말대로 한마음한 뜻으로 뭉쳐 군수의 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군수놈은 장교들과 사령들을 내몰아 공물이라는 명목으로 백정촌사람들의 겨울량식까지 다 털어가버렸다. 최생원과 군수놈은 백정촌사람들을 강제로 쫓아버리기보다 겨울량곡을 빼앗아서 자기들스스로 흩어지게 하려는것이였다.

그러나 그놈들의 생각과는 달리 백정촌사람들은 겨울이 다 지나도록 흩어지지 않았을뿐 아니라 다른 동네로 쌀을 꾸러다니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백정촌사람들이 림껍정이 보내준 물건을 팔아서 온 겨우내 먹고 살았다는것을 군수나 최생원은 알리가 없었다.

이렇게 되자 참을성이 없는 최생원이 군수에게 보쳤다. 군수는 초봄부터 다시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러나 겨울의



곤난을 이겨낸 백정촌사람들의 기세는 더욱 높았다. 군수의 령을 받고 백정촌에 나갔던 아전놈과 장교놈들이 백정들의 쟁기에 얻어맞고 꼬리가 뺏뺏해서 달아나고 말았다.

백정촌사람들의 노한 기세에 질겁한 군수놈과 최생원은 일단 물러섰다. 그런데 이번통에 그놈들은 백정촌사람들의 등뒤에 림걱정이 서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되었다. 놈들은 걱정을 주목하게 되었다. 특히 최생원놈은 걱정을 잡아먹어도 시원치 않을 원주로 단단히 치부하였다. 그럭저럭 아버지의 병도 나아지고 백정촌의 말썽도 잦아들었다. 걱정은 오래간만에 칠장사에 있는 양주팔선생을 찾아가보려고 생각하였다. 그가 칠장사로 떠날 준비를 하는데 림진별장 리봉학한테서 속히 한번왔다가라는 기별이 왔다. 그래서 걱정은 칠장사로 가기 전에 먼저 림진으로 떠났다.

림진에 가니 봉학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다. 황천왕동이 귀양이 풀려 곧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봉학은 제주목사에게 퇴물을 보내여 황천왕동의 귀양이 풀리도록 힘써달라고 부탁하였었는데 며칠전에 제주목사한테서 귀양이 풀렸다는 편지가 왔다는 것이었다.

걱정은 그길로 집에 돌아와 안해인 백손이 어머니에게 그 소식을 알렸다. 백손이 어머니는 귀양간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기뻐서 어린 아이처럼 펄펄 뛰었다.

저녁무렵이었다

《누님!》

갑자기 삿잡문밖에서 황천왕동의 목소리가 들렸다. 백손이 어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갔다.

《아이구, 이게 누구야? 아이구, 이게 웬일이냐?》

백손이 어머니는 천왕동을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안방에서는 애기 어머니가 뛰어나오고 건너방에서는 림걱정이 달려나오고 뜰아래방에서는 백손과 팔삭동이 뛰어나왔다.

《봉학이한테서 네 귀양이 쉬이 풀린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속히 올줄은 몰랐구나.》

걱정은 서로 불안고 우는 천왕동과 백손이 어머니를 떼여놓으며 말했다. 방안에 들어온 천왕동은 식구들앞에서 귀양살이의 고통스럽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집안식구들은 새삼스럽게 천왕동이 지옥같은 귀양살이를 벗어나 살아돌아온것을 기뻐했다.

며칠후에 걱정은 천왕동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천왕동과 함께 청석골과 림진에 들러서 봉산까지 갔다가 돌아올 때는 칠장사에 들러서 양주팔선생을 만나볼 작정이었다.

걱정의 집에서 몇집 건너서면 고서방이라고 부르는 송도사람이 사는 집이 있다. 원래 고양이라는 곳에서 송방을 벌려놓고 장사를 하다가 대여섯해전에 양주로 이사온 사람이었다. 사람이 간교하고리해타산이 밝아서 최생원과 같은 량반들을 잘 섬겼고 관가의 아전들과도 친하기 때문에 장사형편이 그만하면 꽤찮은 축이었다.

걱정의 집과 고서방의 집은 가까운 이웃간이었으나 서로 래왕이 없었다.

한달전에 최생원이 고서방을 자기 집에 불려서 걱정이 백정촌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있는지 몰래 렴탐해보라고 분부하였다. 이 분부를 받은 고서방은 자기 녀편네를 걱정의 집에 보내여 먼저 말을 불었다.

《이웃간에 왕래가 없어서야 쓰겠소? 남들은 이 집을 백정의 집이라구 꺼리지만 그제 다 소갈머리없는 사람들의 짓이지요. 남들은 무어라거나 우리 두 집만은 이웃사촌이라는데 사촌처럼 서로 정답게 지냈시다.》

걱정의 집 식구들은 송방집의 이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다른 사람들은 백정의 집이라고 따돌리는데 말만이라도 그 녀자가 간격을 두지 않는것이 고마웠다. 걱정이 송방주인 고서방을 좋아하지 않아



서 두 남자의 사이는 시원치 못했으나 안 사람들은 인차 친해졌다. 그래서 송방에 일이 많을 때면 걱정의 집안식구들이 찾아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걱정의 동생 팔삭동이가 송방집에 놀러 가면 주인의 녀편네가 구슬려서 물건심부름을 시킬만큼 간격없이 지낼 정도가 되었다.

걱정이 천왕동과 함께 떠나던 날이었다. 팔삭동이는 전에없이 걱정과 천왕동이 부러웠다. 자기도 그들처럼 훨훨 나다니고 싶은 생각에 마음이 들떴다. 그는 떠나는 두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삼작문앞에 머물러 서있다가 찢죽거리며 송방으로 찾아갔다. 그날 마침 송방에 물진이 들어와서 주인 고서방은 일꾼들을 데리고 마당에 쌓인 물건들을 고간안으로 날라들이는 중이었다. 장안의 옷을 꺼내다가 해빛을 쬔이던 송방주인의 녀편네는 들어서는 팔삭동이를 불렀다.

《왜 거기 서있나? 들어와서 내 일이나 좀 거들어주지.》

여우같은 녀편네는 팔삭동이에게 일을 시키면서 슬슬 말을 걸었다.

《황서방이 봉산으로 떠났지?》

팔삭동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황서방이 귀양갔다 올 때는 거지갈더니 옷을 다듬어입으니까 외모가 아주 잘났더군.》

《외모가 무어요?》

《외모가 얼굴이지 무어야.》

《옷을 다듬어 입으면 얼굴이 달라지우?》

《사람은 옷이 날개라네. 옷을 잘 입으면 얼굴이 돋보이다뿐인가.》

《나두 날마다 새옷이나 해달래서 입을 가부다.》

《자네 집 형편에 무슨 천이 많아서 날마다 새옷을 해입는다나.》

《지금은 없지만 얼마전까지만두 퍽 많았소. 다락에두 있구 광쪽에두 있었는데 백정촌사람들한테 다 주어버렸소.》

《저런, 그 많은 천이 어디서 생겼던거게 남을 주어버렸나? 명주같은 좋은 천도 있었나?》

《명주가 무요? 중국비단두 있었소.》

《자네 집엔 별게 다 있었구려. 도대체 중국비단이 어디서 생겼나?》

《어디서 생긴건 나두 모르우. 그런데 이 집에 와서 내가 이런 말을 했다구 말마시우. 우리 누님이 남한테 그런 말을 말라구 그러디다.》 이때 장가갈 나이가 다 된 고서방의 큰 아들이 어린애처럼 훌쩍훌쩍 울면서 들어왔다.

《너는 커다란게 왜 또 우니? 어떤 놈한테 맞았나?》 주인녀편네가 우는 아들에게 물었다.

《백손이가 날 땅에다 뺏다쫓았어.》

《아니, 커다란게 열서너살먹은 어린아한테 진단 말이냐?》

《내가 지나가다가 백정의 새끼라구 놀려줬더니 단박에 달려들어 태기치는걸 뭐.》

고서방의 아들은 눈물을 이리 씻고 저리 씻었다. 마당에 서있던 고서방이 아들의 말을 듣고 증을 벌컥 냈다.

《아니, 그래두 너는 가만있었니?》

녀편네가 얼른 남편에게 눈짓을 했다.

《백손이와 함께 놀다가 싸웠는데 이 못난게 울고 들어온게지요.》

《흥, 백정놈의 집안하구 래왕을 터주니까 제법 --- 참, 그 집에 명주두 있구 중국비단두 있었는데 백정촌놈들한테 다 주었다지?》 고서방은 혼자말처럼 중얼거리다가 슬그머니 대문밖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쏜살같이 최생원의 집으로 뛰어갔다.

그날 날이 저물 때 양주판가의 장교들과 사령들이 걱정의 집으로 쏟아져나왔다. 그놈들은 집식구들을 한옆에 몰아넣고 집뒤집을 하였다. 그러나 그놈들이 찾는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 다만 광속에서 무슨 물건을 넣었던것 같은 께짝을 여러개 얻어냈을뿐이었다.

놈들은 집안식구들을 따로따로 묶어서 끌어내기 시작했다. 무지스러운 놈들은 지어 다 죽어가는 걱정의 아버지까지 뒤결박을 지어서 끌어내려고 하였다.



애기 어머니는 울며불며 사정을 했다.
《소인네 아버지는 반신불수병으로 여러해째 꼼짝을 못합니다. 그저 불쌍하게 생각해서 남겨두구 소인네만 잡아가십쇼.》

이 말을 들은 장교놈들은 애기 어머니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갈겼다.

《백정년이 무슨 잔말이나?》

이렇게 옥박지르고는 걱정의 아버지를 죽은 개새끼처럼 질질 끌어냈다

양주군수가 립걱정의 집에서 찾아냈다는 꺾을 가져다가 들여다보니 꺾 한귀통이에 회미하게나마 윤원형의 이름 석자를 썼던 자리가 눈에 알렸다. 군수는 최생원이 밀고한 내용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며 잡아온 걱정의 식구들을 문초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무지스러운 매를 맞으며 문초를 받는 동안에 걱정의 아버지는 종내 죽고말았다. 군수놈은 크게 선심이나 쓰듯이 애기를 시켜 걱정의 아버지시체를 집으로 내가게 하였다.

애기는 외할아버지의 시체를 불안고 어쩔줄 몰랐다. 그는 철없이 송방집에 가서 도와달라고 청했다. 그랬더니 송방주인놈은 당장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내 집에 왜 왔느냐? 썩 가거라.》

《별 기겁할 소리가 다 많다. 우리가 백정놈의 송장을 만질 사람이나?》 송방주인의 녀편네는 애기의 등을 떠박질러서 내쫓았다. 애기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이때 백정촌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그들은 걱정의 아버지시체를 거두어 방안에 들여놓고 애기에게 말했다.

《우리가 뒤구멍으로 알아보았더니 송방주인놈과 최생원놈이 너의 집에 평안감사가 화적들에게 빼앗긴 물건들이 감추어져 있다구 밀고 했다더라. 우리 몇이 오늘 떠나서 너의 외삼촌을 찾아가지구 올레니 며칠만 참구 기다려라. 우리 동네 아낙네들이 너를 도와주려 이리루 곧 올게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나서 립걱정을 찾아 봉산으로 떠났다.

림걱정은 그동안 천왕동을 데리고 립진과 청석골을 거쳐서 봉산까지 갔다가 천왕동을 그곳에 떨구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청석골에 들렀다.

걱정이 청석골두령들과 함께 백정촌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있을 때 봉산에 떨구고 온 천왕동이 땀을 철철 흘리며 뛰어들어왔다. 그는 걱정과 여러 두령들이 놀랄 겨를도 주지 않고 마당에서부터 소리쳐 말했다.

《형님, 큰일 났소. 최생원놈과 송방주인놈이 형님네 집에 평양감영의 물건이 있다구 판가에 밀고를 해서 장교놈들이 쏴아져나와 집뒤집을 해가구 집안식구들을 깡그리 잡아갔다우. 백정촌사람들이 일부러 그걸 알려주려구 봉산까지 왔습디다. 더구나 백손이 할아버지는---》 천왕동은 여기서 잠간 우물거렸다. 걱정은 불길한 예감을 안고 마루로 뛰어나왔다.

《무어야?》 《판가에 잡혀들어가서 매맞구 돌아가셨다우.》

걱정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는 그길로 마당에 내려서며 두령들에게 말했다.

《나는 가우.》 박유복이 급히 걱정을 따라나섰다. 천왕동이 유복을 말했다. 《같이 가는게 부질없소. 그만두우.》

《형님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는판인데 날더러 가만히 앉아있으란 말인가?》

걱정이 뒤를 돌아보았다.

《유복이가 나하구 같이 가겠단 말이나? 당치않은 소리를 하지두 말아. 천왕동이 두 여기서 도루 봉산으로 가거라.》

이 말에 유복은 잠자코 있는데 천왕동이 성을 냈다.

《처남은 남이란 말이요?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라두 우리 누님이 죽을지살지 모르는 판국에 봉산으루 도루 가라는건 무슨 소리요? 형님이 같이 안 가겠다면 나 혼자 먼저 가겠소.》

천왕동은 말을 마치자 먼저 나가버렸다. 걱정은 유복에게 말했다. 《너만은 그만되라.》



걱정의 말에 유복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을 못했다.

걱정과 천왕동은 다음날 점심녘에야 양주읍에 들어섰다. 걱정은 아버지의 참혹한 주검을 들여다보며 서럽게 울었다. 그가 울음을 그치고 백정촌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머리를 풀 때였다. 《옛날 조선사람들에게는 부모가 죽었을 때 머리를 푸는 풍습이 있었다.》

마루에 서있던 애기가 소리를 질렀다.

《아이구 외삼촌, 장교들이 외삼촌을 잡으러 나왔소.》

애기의 말을 듣고 걱정이야 밖을 내다보니 술한 장교놈들이 방망이를 들고 집에 들어서고있었다.

《걱정이, 판가에 잡혔다!》

앞장선 장교 한놈이 걱정에게 말했다.

《곰게 잡혀가자.》

또 한놈이 걱정을 타이르듯이 말했다. 걱정이 천하장사라는것을 장교들은 잘 알고있었기때문에 이렇게 수십명이나 함께 쫓아나온것이였다. 걱정은 마루우에 그대로 서서 장교놈들에게 말했다.

《내가 지금은 못 잡혀가겠소. 죽은 아버지를 파묻구야 잡혀갈테니 래일모레 다시 오시우.》

그러자 앞장선 장교놈이 발끈했다.

《판가의 령을 네 맘대루 뒤집어엿느냐? 어쭙지 않은 소린 하지두 말구 어서 나서라.》

걱정은 눈을 부릅떴다.

《내가 잡혀가구싶지 않은걸 잡아갈 사람이 누구요? 열명은 교사하구 백명이라 두 내 몸에 손을 하나 못 댈테니 알아 하우.》 걱정의 눈에서는 불이 펄펄 일었다. 장교놈들은 걱정의 말에 겁이 나서 잡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돌아갔다.

걱정은 장교놈들이 돌아간 뒤에 천왕동과 함께 식구들이 갇혀있는 옥으로 갔다. 옥에 갇힌 식구들의 참혹한 정경은 말이 아니였다. 모든 식구들이 매를 맞아 운신을 못했다. 정신이 부실한 팔삭동이는 걱정이야 옥에 찾아갔을 때 방금 옥안에서 숨을 거두고있었다.

갑자기 칼과 창을 가진 장교놈들이 옥을 에워싸고 아우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천왕동이 걱정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형님, 얼른 피합시다.》

걱정은 고개를 가로 흔들었다. 자신이 피한다면 옥에 갇힌 식구들에게 더 큰 화가 차례지리라는것을 알고있기때문이었다.

《그럼 곰게 잡혀갈테요?》

《잡혀가지. 나 하나 잡혀가면 집식구들이 저런 꼴을 면할수 있지 않느냐?》

《형님이 잡혀가면 뒤일은 어떻게 하우?》

《십중팔구 나는 못 나오게 될게다. 만일 내가 못 나오게 되면 네가 백정촌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아버지와 팔삭동이의 장례를 치뤄다구. 장례비용은 리봉학의 도움을 받도록 해라.》

《형님이 잡혀서 놓여나오지 못하면 난 청석골사람들을 데리구 와서 파옥하겠소.》

《파옥이라?--- 아직은 작정이 없다. 우선 내 말대루만 해라.》 이러는 동안에 수교가 장교 삼사십놈을 이끌고 옥마당에 들어섰다. 걱정이 앞으로 나섰다.

《잠간 거기들 서서 내말 좀 들으시우.》 수교놈은 발을 멈추고 눈을 부릅뜨며 호령했다. (이놈! 네가 아까는 집에 잡으러간 우리 장교들을 내몰았다더니 여긴 왜 왔느냐. 분명 파옥하러 왔겠지?) (파옥하러 왔으면 옥문을 그냥 두었겠소?)

《그럼 아까는 잡으러간 우리 장교들을 왜 집에서 내몰았느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잡혀가겠다구 했소.》

《그건 판가에 들어가서 원님께 말씀드려 말미를 받기루 하구 지금 곰게 잡혀가자.》

《좋소. 내가 잡혀가리다. 여기 서있는 내 처남은 상관없는 사람이니 그냥 보내주우.》

《안된다.》

《안돼? 그럼 내가 먼저 처남을 보내구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소.》

《이놈아. 주제넘게 큰소리 말아.》



《걱정이기 여기 섰으니 칼루 칠 사람이 있거든 쳐보구 창으루 찌를 사람이 있거든 어디 찢러보우.》

수교가 뒤를 돌아다보며 장교들에게 눈짓을 했다. 장교들은 일시에 좌우로 갈라져서 걱정과 천왕동을 에워싸고 들어오며 고향을 질렀다. 걱정은 수교를 노리고 쫓아가다가 한번 뛰어 수교의 뒤로 넘어가 그놈의 바른팔을 잡아제치고 칼을 빼앗았다.

장교들이 이것을 보고 따라오자 걱정은 벌써 칼을 쥐고 이리저리 내달았다.

걱정이 삼시간에 장교 삼사십명을 칼로 치는데 치는것은 칼등이어서 사람은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치는 곳이 바른 팔목이어서 모두 칼과 창을 떨어뜨렸다.

옥문에 몸을 기대고 서서 구경하고있던 천왕동이 땅에 떨어진 칼과 창을 집어다가 한옆에 모아놓았다. 장교들이 슬금슬금 도망질을 시작하자 걱정은 소리를 질러서 멈춰세웠다.

《자, 이제는 걱정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줄 알았소?》 걱정이 수교에게 물었다. 그놈은 대답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있었다. 이때 천왕동이 걱정에게 소리쳤다.

《저기 또 한패가 오는구려.》

천왕동이 가리키는쪽을 바라보니 장교들의 다른 한패가 옥쪽으로 밀려오고있었다. 앞장에는 리방이 서있었다. 리방은 걱정의 앞에 와서 꾸짖듯이 말했다.

《걱정이, 자네두 판가의 령을 거역하는 것이 큰 죄인줄 알겠지? 그만한것을 잘 알 사람이 이제 무슨짓인가?》

《나 하나만 잡아가면 긴 말을 안하겠소. 그렇지만 상관없는 내 처남까지 잡아간다니 가만있을수가 있소?》

《가만있게. 자네 처남은 일없으니 자네만 가세.》

이렇게 되어 걱정은 천왕동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판가에 잡혀왔다. 판가의 구석방에 갇힌 걱정은 그날밤을 복잡한 생각으로 꼬박 밝혔다. 그는 한평생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한 일에 발을 내짚어본 일이 없고 누구

앞에도 자기가 한 일을 거짓말로 감추어본 일이 없었다.

걱정은 청석골사람들의 일을 천만번 옳다고 생각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빼앗은 물건을 주저없이 받았고 받아서는 서슴없이 백정촌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던것이다.

걱정은 자기가 한 일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설사 그것이 《죄》가 되어 당장 죽을지언정 자기가 한 일을 세상앞에 떳떳이 밝히고싶은것이 그의 불같은 마음이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하면 청석골사람들과 백정촌사람들에게 화를 입힐수 있었다.

그는 온밤을 궁리하던 끝에 모든 사실을 감추고 적당히 둘러대기로 결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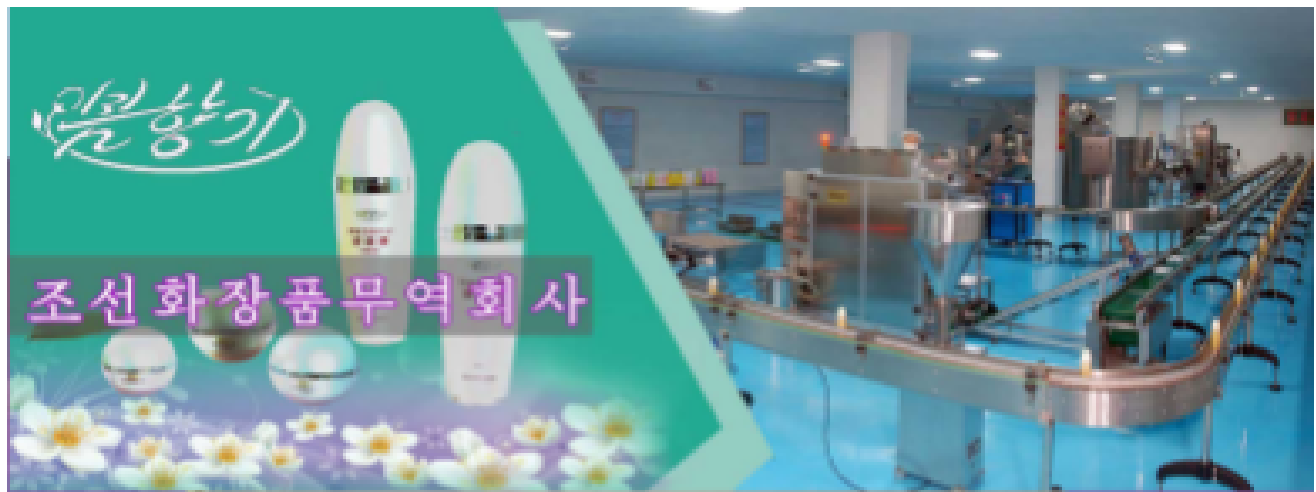
이튿날 아침에 군수가 걱정을 잡아들여다가 문초하였다. 걱정은 온밤 궁리하여 결심한대로 최생원과 고서방이 밀고한 내용을 전부 부인하고 물건짜은 작년 설달에 평양에서 보내준것이라고 말했다. 군수는 걱정의 말을 그럴듯하게 들었다.

그는 걱정의 말이 틀림없는가를 평양에 알아볼 때까지 걱정과 그의 집식구들을 옥에 가두어둘 작정이였다.

그러나 걱정의 아버지와 동생이 옥에서 죽은 이상 장례를 치르는 동안은 걱정이 만이라도 내놓지 않을수 없었다. 그래서 군수는 다른 식구들은 옥에 그대로 두고 걱정에게만은 사흘동안 말미를 주어 장례를 치르고 들어와 옥에 갇히라고 선심을 썼다. 걱정이 집에 나와보니 천왕동은 립진에 가고 애기 혼자서 시체 둘을 지키고있었다. 걱정은 곧 장례치를 준비를 차렸다. 그날 점심때 천왕동이 돌아오고 저녁때 리봉학이 왔다. 다음날 낮에 유복과 서림이 함께 찾아왔다.

사흘째 되는 날 장례를 치르었다. 장례의 어려운 일은 전부 백정촌사람들이 해주었다. 장례가 끝나자 리봉학은 그길로 곧장 립진으로 떠났다. 떠나면서 그는 걱정에게 무엇인지 귀속말을 하였다.

(다음호에 이음)



472화장품조

효능: 건성피부에 알맞는 보습화장품이다.

히알루론산과 고려약추출물을 첨가하였으므로 건조한 피부를 신속히 개선하여 광택과 탄력을 보장해주며 노화를 지연시켜준다.

수렴성살균물, 보습성살균물, 머리영양물, 플크림, 크림, 밤크림, 분크림으로 구성되어있다.



날로 더욱 흥성이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